

연구보고서 2004-18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 데이터 구축방안

백 화 중
김 안 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 평가센터

머 리 말

경제위기 직후 수립된 실업 및 빈곤대책은 급박한 위기상승을 수습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세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국내자본의 해외이탈 등으로 우리사회의 소득분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장기실적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여건의 악화로 인한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근로빈곤층 (working poor)이 증가하는 등 빈곤의 양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빈곤의 실태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한 가운데 제시되는 빈곤정책은,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확대, 정책효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의 양태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빈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는 기존의 횡단면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적절한 빈곤관련 정책의 마련 및 그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장기간에 해당되는 개인 및 가구를 관찰한 연속적인 자료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 즉, 빈곤 및 차상위 계층의 개인 및 가구들의 연령 및 가족구조에서부터 노동시장에서의 활동, 소득과 지출행태와 같은 경제활동, 건강수준 및 삶의 질 같은 사회복지욕구 및 사회보장참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자료의 축적을 위해서는 빈곤 및 공공부조 관련 패널자료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패널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의 상태, 개인의 행위(저축 및 근로, 실업 등) 및 그 변화를 추적해 가는 종단면(longitudinal) 자료이다. 따라서 빈곤패널은 빈곤 현황 및 추이변화에 대한 파악은 물론 관련변수 간 인과관계의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행태모형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행태모형은 특정 빈곤정책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측을 의태분석(simulation)을 통하여 가능하게 한다. 빈곤패널은 정책도입 시점의 전후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분석기법을 통하여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자료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 빈곤 및 공공부조 관련 횡단면 조사와 국내·외 패널자료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빈곤관련 패널 자료의 표본 및 표집방법, 조사방법, 패널관리방법 및 data-cleaning 방법 등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빈곤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의 개괄적인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패널조사 자료는 횡단면자료가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분석상의 이점이 있긴 하지만, 표본의 설계에서부터 조사패널의 관리 등 패널자료의 질적 수준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는 횡단면 조사 자료보다도 못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질적 수준이 높은 패널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본원의 백화종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김안나 부연구위원 등의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보고서가 우리나라 빈곤연구의 지평 확대하고, 빈곤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의 구축에 밑거름으로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연구진들은 원고의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에 수학중인 김연정씨에게 감사하고 있으며, 바쁜 일정가운데도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 준 본원의 노대명 부연구위원과 여유진 책임연구원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박 순 일

목 차

요 약	11
I. 서론	2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9
2. 기대효과	31
3.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37
II. 패널자료의 특징	38
1. 패널자료의 개념	38
2. 패널자료의 특징	39
III. 우리나라의 빈곤 및 공공부조 관련 횡단면 자료 현황	43
1. 최저생계비 계층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43
2. 차상위계층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44
3.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46
4. 차상위계층의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및 의료급여 확대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8
5.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49
6. 시사점	51

IV. 국내·외의 패널데이터 및 국제비교 프로젝트 현황	52
1. 국내 패널데이터	52
2. 국외 패널데이터	60
3. 국제비교 프로젝트	109
V. 우리나라의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113
1. 기본방향	113
2. 표본	115
3. 조사	117
4. 관리체계	120
5. 자료의 관리 및 활용	124
VI. 결 론	126
참고문헌	129
부록: 외국의 패널조사 현황(자료: PSID 웹 사이트)	131

표 목 차

〈표 IV- 1〉 NLS 구성	62
〈표 IV- 2〉 조사방법의 변화	68
〈표 IV- 3〉 PSID의 핵심조사항목	70
〈표 IV- 4〉 추가된 주제	72
〈표 IV- 5〉 PSID 조직도	74
〈표 IV- 6〉 BHPS의 주요주제	82
〈표 IV- 7〉 개인용 설문지의 내용	85
〈표 IV- 8〉 조사 연도별 특별 주제	94
〈표 IV- 9〉 GSOEP 하위표본	95
〈표 IV-10〉 설문지의 내용	102
〈표 IV-11〉 PACO 데이터베이스 구성내역	110
〈표 V- 1〉 국내외 패널조사 사례의 표본규모	116
〈표 V- 2〉 우리나라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조사 운영조직표(안)	120
〈표 V- 3〉 국내외 패널조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보상방법	123

Abstract

A Preliminary Study to Build Up Korean Poverty Panel Survey

The poverty problem of Korea is going through changes not only in quantity, but also in quality.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1997, the number of poor people has increased sharply, along with the newly emerging, and rapidly growing, working poor population. Also, the duration of poverty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Government's anti-poverty policies, designed without in-depth study of poverty dynamics, are generally very limited in effect. Cross-sectional data provides too limited information to come to an understanding of such dynamic aspects of poverty as changes in lifestyle and the needs of the poor and near-po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uild up a panel data set on poverty that provides multifaceted, longer-term information about individuals and households in poverty.

Thus, in this research, we looked into the prospects and problems of poverty panel data, going over a wide range of panel surveys conducted in the country and abroad, including Korea House Panel Survey (KHP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and Self-support Panel Study (SPS: Korea),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PSID: US) and National Longitudinal Survey(NLS: US),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BHPS), and 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 (GSOEP). The panel data from abroad are compared from the standpoints of overall outlines, sampling, survey method, and panel maintenance.

We suggest the following three basic directions and five guidelines to keep the high quality panel data. As to the basic directions for building a poverty panel data: i) the panel should be sampled in a way that makes it representative of all population; ii) survey questionnaire should be designed so as to provide

information that makes interdisciplinary studies possible, and iii) data set should be designed to make international comparison possible. The five guidelines to keep high quality panel are: a high-quality initial sample, proper sample tracking rules, successful tracking of sample members across time, extensive across-wave consistency checking, and continuous measurement during the panel period.

요 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빈곤은 경제위기 이후 양적·질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 빈곤은 양적으로 경제위기이후 빈곤층이 확대되었으며,
 - 질적으로 경제위기이후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확대되고 있으며, 빈곤의 지속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
-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빈곤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빈곤 및 공공부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장기간에 걸친 빈곤층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
 - 기존의 횡단면자료(cross-sectional data)나 특정계층을 겨냥한 제한적인 패널자료로는 현재 역동적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빈곤문제를 심층 분석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많음.

2. 기대효과

- 일시적 빈곤과 지속적 빈곤의 차이 규명할 수 있게 하며, 탈빈곤 정책의 설계상의 중요한 자료가 됨.
- 빈곤의 유입과 탈출의 총량적 흐름을 보여줌.
- 사회보장체계의 성격을 규명해 주고, 이전소득의 수급형태를 파악하게 해주고, 정책변화에 대한 평가수단을 제공해 줌,

- 노동시장경력을 알 수 있으며, 세대간 연구를 가능하게 함.
- 대표적인 횡단면 자료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으며, 행태모형의 추정이 가능한 분석적 이점이 있음.

3.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연구에서는 패널조사와 패널자료의 개념과 특징을 파악하고, 선행문헌연구를 통해 빈곤문제의 파악에 패널자료가 효과적인 이유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기존 국내 빈곤 및 공공부조 관련 횡단면 조사와 국내·외 패널자료의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빈곤 및 공공 부조 패널구축의 시사점을 도출할 것임.

II. 패널데이터의 특징

1. 패널조사의 개념

- 최근 선진국에서는 시계열자료의 성격과 횡단면적 자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패널 데이터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패널데이터(panel data)는 동일한 개인 및 가구들을 표본으로 하며, 이들을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하고, 일정기간(1년 또는 격년)마다, 동일한 질문을 하여 얻어지는 자료를 말함.
- 패널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모든 조사와 마찬가지로 패널로 선택된 응답자 집단이 연구하고자 하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2. 패널조사의 장단점

- 패널조사의 장점
 - 동태적(dynamic) 성격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줌. 특정 시점간의 전환과

정(transition process)을 보여주고 동태적 변화를 정확하게 기록해 줌.

- 특정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가능케 함.
- 빈곤에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접근이 가능하여 보다 높은 지식기반의 구축을 가능케 함.
- 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평가를 가능하게 함.

□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조사의 장점

- 일시적 빈곤과 지속적 빈곤의 차이점의 비교가 가능함.
- 전체적인 빈곤가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음.
- 공공부조 수급 유형을 파악할 수 있음.
- 빈곤가구의 취업상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함.
- 빈곤가정의 세대간 연구가 가능함.

□ 패널조사의 단점

- 비용이 많이 듦.
- 표본이탈로 인한 대표성의 상실과 그로 인한 데이터 질의 문제가 있음.
- 자료의 활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음.

Ⅲ. 우리나라의 빈곤 및 공공부조 관련 횡단면자료 현황

1.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보건사회연구원)

-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임.
 - 5년 주기로 조사하여 2004년에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3년마다 계측하도록 변경됨.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가

구 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계측함.

- 인구센서스 조사구를 표본추출 모집단으로 함. 총 30,000가구를 추출하여 1차 예비조사 후, 2차 본 조사는 4,000가구임.
 - － 1차 예비조사는 조사 대상가구 선정과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것이고, 2차 본 조사는 저소득층의 가계수지, 소비실태, 생활실태 조사임.

2.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 차상위계층의 개념을 정리하고, 차상위계층의 범위 설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차상위계층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지원책을 제시함.
- 1차 기초조사의 대상은 전국에서 무작위 표본 추출된 3만 가구이고, 2차 심층조사의 대상은 1차 조사 가구 중 차상위계층 이상의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를 비동일 확률로 표집 함.
 - － 추가조사는 수급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특성을 집중분석함.

3.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보건사회연구원)

- 만 65세 이상 노인과 비노인 층들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노인 복지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표본조사구 추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 157개 표본 조사지역을 추출하여, 9,355가구의 가구와 65세 이상 노인 2,535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함.

4. 차상위계층의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및 의료급여 확대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소득빈곤과 의료 빈곤의 객관적인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저소득층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며, 의료욕구가 큰 저소득층의 규모를 파악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표본은 1차 조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150개 조사구에 5,040세대를 1차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2차 조사는 1차 표본 중 보험료 기준 하위 30%내에서 1,800세대를 선정하여 소득 추정 및 의료욕구 심층 대면조사를 함.

5.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매 5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구 및 장애인들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것임.
- 표본의 크기는 200개 지역, 지역 당 220가구로 약44,000가구이며,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추출하고, 875개 사회복지시설로 거주자 약 8만 3천여 명을 전수조사 함.

IV. 국내·외의 패널데이터 및 국제비교 프로젝트 현황

1. 국내 패널데이터

가. 대우패널(한국가구패널: Korea Household Panel Survey)

- 조사목적은 동일한 가구 및 개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제활동을 파악하고,

가구와 가구원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제 변수를 이해하기 위한 것임.

－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주관하였으며 자체예산으로 진행됨.

□ 표본추출은 다단계 층화확률표본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일반가구 8,236가구를 선정하였고, 1차년도 조사에서 선정된 가구의 55.2%인 4,547가구에서 패널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짐.

□ 가구용 설문지는 가구 및 주거에 관한 사항, 소득과 지출, 금융상품 보유현황에 대한 것이고, 개인용 설문지는 개인의 상황, 경제활동, 직업경력에 대한 내용임.

나. 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 조사목적은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과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를 통해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고용보험)의 수립과 평가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하였으며 고용보험기금에서 조사비용 지원됨.

□ 조사대상은 도시지역의 일반근로자가구(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이며, 1차 조사시의 조사성공 표본 규모는 5,000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가구원 13,000명임. 표본추출은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전국 21,938조사구)로 하였음.

□ 조사내용은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과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을 다룸.

－ 개인용 설문지는 조사대상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구성원이 응답자가 됨.

－ 가구용 설문지는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가 응답자가 됨.

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활패널

1) 개요

- 조사목적은 저소득층의 욕구와 규모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확보, 저소득층의 생활실태 및 자활과정 등을 파악함으로써 자활지원정책과 더 나아가 빈곤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관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함.
- 1차 조사대상은 전국적으로 177개 표본조사구에 거주하고 있는 10,114가구의 30,033명에 대하여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조사의 대상은 파악된 저소득 가구(2002년 중위소득의 60%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가구) 1,125가구 및 그 가구에 속한 근로가능인구(15~65세 미만) 1,763명에 대하여 심층조사 함.
- 1차 조사의 가구용설문지는 가구원 수 및 주거상황, 월평균 가구 총소득, 재산, 부채, 사회보장을 다루고 있으며, 개인용 설문지는 일반현황과 소득, 사회보험 가입 및 수급현황에 대하여 다룸.
- 2차 조사는 빈곤가구에 대한 심층조사로 개인용 조사표는 다시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용으로 구분됨.
 - － 가구용 설문지는 가구의 지출, 저축, 사회복지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개인용 설문지는 직업능력, 취업욕구, 고용서비스, 개인적 특성 등을 조사하고 집단별 특수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라. 산업인력관리공단 중앙정보고용원 청년 패널

- 조사목적은 학교로부터 직업세계로의 진입과정(school to work)과 노동시장 경로(career path)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개인의 교육·훈련 욕구 및 노동시장 내 수요(희망직업 등)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정

책(진로 및 취업알선)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것임.

- 노동부의 예산지원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함.
- 조사대상은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를 위해 선정된 50,000가구 중 15~29세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그 개인임.
 - 표본추출은 조사구별 무작위 추출을 사용하여 20%인 약 10,000가구와 그 가구의 15~29세 연령대의 가구원을 추출함.
- 조사내용은 가구용 설문지는 가구의 구성, 가구 주거형태, 소득관련항목 등을 다루고, 개인용 설문지는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교육 및 취업 진로, 직장경험, 직업관, 취업준비 등을 조사함.

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고용패널

- 조사목적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대표성을 갖는 청년층의 교육관련 정보를 충분히 생성하면서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관계를 보다 밀도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함.
- 조사대상은 중학교 3학년생(2,000명)과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생(2,000명),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2,000명)과 이들 조사 학생의 학부모와 담임선생, 학교행정가를 동시에 조사함.
- 학교, 학생, 가구 설문지로 구성되며 학교설문지는 학생평가, 담임교사의 일반적 사항을 다루고, 학생설문지는 학교 및 가정생활, 학업성취, 진로계획, 재학중 근로, 직업관, 일반적 사항을 다루며, 가구설문지는 가구원현황, 생활·교육환경, 경제활동 및 자기개발 등을 다룸.

2. 국외 패널데이터

가. 미국

1) NLS(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Labor Market Experience)

- NLS는 미국의 대표적인 노동관련 패널조사로 1966년에 시작됨.
 - 미국 노동성의 BLS(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비용을 부담함.
 -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CHRR(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 주관
 - 시카고 대학의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가 실사 진행함.
- 최초 조사대상을 45~59세의 남성, 30~44세의 여성, 14~24세의 젊은 남성, 14~24세의 젊은 여성의 4집단으로 함.
 - 각 집단마다 5,000명 이상씩 총 20,000명 이상을 조사함.
 - 이후 1979년 14~22세 사이의 젊은 남녀 12,686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패널조사가 시작됨(NLSY). NLSY의 조사내용은 알코올 및 마약 남용실태, 젊은이들의 출산 및 육아 상태 등에 대한 것임.

2)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PSID만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2가지 특징은 개개인들을 가구라는 틀 속에서 오랜 세월 관찰해 왔으며, 가구들을 세대(generation)를 넘어서 까지 추적하였고 종종 한가구로부터 파생된 다수의 세대들을 동시에 면접하였다는 것임.
- PSID의 장점
 - 어느 시점에서든 모든 연령층에 대하여 미국의 가구와 개인들을 대표함.
 - 고용, 소득, 인구학적인 정보에 대한 연도별(때로는 월별) 시계열 데이터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음.

- 각 세대로부터 직접 얻는 성인들에 대한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의 정보를 가지고 있음.
- 건강, 부, 저축, 친족관계 등의 다양한 보충적인 주제들을 포함시킴.
- 최근에는 이웃환경, 건강과 사망 등에 대한 특수목적의 연구주제들을 포함시킴.
- 연구시작년도인 1968년도부터 종·횡단면적인 데이터를 계속 검토 및 기록해 왔음.

□ PSID의 표본

- PSID의 최초 표본은 2개의 독립적인 표본들로 구성됨. 하나는 군대와 감옥, 정신병원 등을 제외한 생산가능 인구에 대한 횡단면적인 대표표본을 다단계층화추출 방법에 근거하여 추출한 표본이며, 다른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표본임.
- 최초 PSID 가구들은 1967년도의 미국 가구들을 대표하는 확률표본을 구성하고, 어느 시점에서든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도 이 표본이 대표성을 갖게 하기 위해 PSID는 표본추적원칙을 세움.
- PSID는 표본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은 가구 내에 동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조사함. 이러한 과정은 모집단에서의 가구변화과정을 모방하여 표본이 시간을 초월하여 동태적으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

□ PSID의 조사방법

- PSID는 매년 면접조사를 통하여 개인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가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 PSID 데이터 수집은 미시건에 있는 SRC의 실사 사무국에 의해 수행됨.
- 조사방식은 기장조사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컴퓨터를 활용한 CAI를 이용

하고 있음.

□ PSID의 조사내용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와 개개인에 대한 수년간에 걸친 연구를 통해 방대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가짐.
- 초기의 조사항목에는 경제적·인구학적 분석에 초점을 두고, 크게 전체와 각 가구구성원의 소득원천과 소득액, 취업상태, 가구구성원 변화, 거주환경 등에 대한 실제적인 세부항목들이 포함되었음.
- 필요에 따라 특정 해에는 사회적·심리학적 성향에 대한 조사항목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음.
- 응답률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

나. 영국가구패널조사 The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BHPS)

□ BHPS의 개요

- 1991년 9월에 시작한 영국의 가구패널조사(The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BHPS)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추세를 관찰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21세기 영국의 정치, 사회, 경제 구조를 예측함으로써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안됨.
- 주요 목적은 영국의 개인 및 가구 단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경제적 변수 범위와 관련한 원인 및 결과와 변화를 확인하고 유형화하고 예측하기 위한 것임.
- 매년 실시되며, 2004년 9월 현재 14차년도 조사(wave 14)가 시작됨.
- BHPS는 Essex 대학의 ESRC Research Centre on Micro-social Change와 UK Longitudinal Studies Centre에서 주관하고, 실사는 민간조사기관인 NOP(National Opinion Poll) Market Research Ltd.가 1991년부터 수행함.

□ BHPS의 표본

- BHPS는 약 5,000가구 내에서 10,000명 이상 면접하여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띤 표본으로 16세 이상 성인 각각에 대해 매년 조사를 실시함.
- 표본은 출생, 혼인, 동거 등으로 인한 새로운 가구원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반대로 사망, 거부, 조사 지역 밖으로의 이사 등으로 인해 줄어들기도 함.
- BHPS에는 1차년도 조사 이후에 추가로 만들어진 3가지 표본이 있음.
 - ① ECHP(유럽공동체가구패널) 하위 표본
 - ②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확대 표본
 - ③ 북아일랜드 확장 표본

□ BHPS의 조사

- BHPS 질문지는 가구용 질문지, 개인용 질문지, 자기기입 질문지, 대리설문서가 따로 마련되어 있음.
- BHPS 질문지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주제는 가구동학(動學), 노동시장, 소득과 부의 분배, 주거, 건강, 그리고 사회경제적 가치 등임.
- BHPS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는 서식 질문지를 이용하여 면접자가 면대면 면접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9차년도 조사에서 컴퓨터지원 개인면접(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으로 전환됨.

□ BHPS의 관리체계

- Centre는 현장 조사를 수행하도록 의뢰된 「NOP 사회·정치부」와 함께 자료 수집의 모든 측면을 밀접하게 같이 작업하고, 효과적인 데이터 질과 적절한 반응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되고 동의된 일련의 조사 절차를 수행함.

- Centre는 매년 조사를 위해 응답자의 주소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유지해야 하며, 최신 정보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함.

다. 독일: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GSOEP)

□ GSOEP의 개요

- 1984년 처음 실시된 GSOEP(Sozio-ekonomische Panel)은 독일의 대표적인 가구패널조사임.
- 매년 개인 및 가구의 소득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GSOEP 자료는 개인과 가구의 생활조건상의 안정성과 변화를 분석할 수 있음.
- GSOEP은 국립 경제연구기관인 DIW에서 전체를 관할하고, 설문지 작성 및 기타 실무는 민간학술조사 전문기관인 「Infratest」에서 수행함.
- GSOEP은 설문지 형식이나 조사 기법상 PSID의 문제점을 보완한 데이터 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후 유럽 각국에서 실시한 가구패널조사의 모태가 됨.

□ GSOEP의 표본

- GSOEP에 의해 대표되는 모집단은 처음에는 서베를린을 포함한 서독지역의 거주 인구로 한정되었다가, 1990년 6월 이후 동베를린을 포함한 동독지역으로 확대됨으로써 독일 전체인구를 모집단으로 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패널데이터로 자리 잡게 됨.
- 최근 2002년 조사에서 「GSOEP West」 표본에는 7,175명 3,889가구가, 「GSOEP East」 표본에는 3,466명, 1,818가구가 속함.

□ GSOEP의 조사

- GSOEP 조사 원칙은 표준화된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직접 면접타계식(face-to-face) 개인면접을 가구 내 모든 16세 이상 개인에게 실시하는 것임.

- GSOEP은 1984년부터 개인 및 직업 일대기, 혼인과 청년 일대기, 노동시장 진입, 개인의 사회적 배경, 이민 정보 등 대표적인 일대기 정보가 수집됨.
- GSOEP은 다양한 도구와 설문지를 통해 16세 이상 모든 개인의 일련의 회고적 일대기 자료를 수집함.
- GSOEP의 서베이 도구는 가구에 대한 제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Address Log와 설문지로 구성됨.

3. 국제비교 프로젝트

가. PACO 프로젝트

- PACO(Panel과 Comparability) 프로젝트는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패널데이터를 국제비교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정의와 포맷 등을 일관되게 재정립하는 프로젝트임.
- PACO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노동참가, 소득분배, 빈곤, 노인문제 등의 주제를 국제비교학적인 횡단면분석이나 패널분석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음.
 - PACO 데이터베이스는 원패널 자료를 Compatibility와 Comparability의 관점에서 일관적으로 재정리한 자료로 각 국가간 일관성을 갖는 체계적으로 분류됨.
 - PACO 데이터베이스의 내역으로는 소득변수 66개, 인구학적 변수 16개, 노동력 변수 29개, 인종학적 변수 14개, 주택변수 1개, 시간사용내역 4개, 가중치 4개, 교육 3개 등임.

나. LES(Luxembourg Employment Study) 프로젝트

- LES(Luxembourg Employment Study)란 유럽연합의 Human Capital and Mobility Programme과 Nordic Research Council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국제

노동연계 프로젝트임.

- LES는 노동인력이 부족하면서, 다른 분야에서는 실업이 지속되는 노동시장의 불균형 현상을 국제비교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용이하도록 각국의 노동관련 데이터를 일관성 있는 체계 하에 재정리하는 프로그램임.
 - LES에는 1997년 기준 12개국의 고용관련데이터가 포함되어있으며 향후 6~7개 국가가 더 참여할 것임.
 - 각국의 데이터들은 1992년 EUROSTAT의 노동력과 관련된 집계변수에 사용된 분류체계와 ILO의 권고안, 그리고 EU의 국가들의 경험을 참조하여 12개의 주요그룹과 이에 관련된 90개의 변수로 구성됨.

V. 우리나라의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1. 기본방향

- 빈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그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장기간에 해당되는 개인 및 가구를 관찰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수집되는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자료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의 상황, 개인의 행위 및 그 변화를 추적해 가는 종단면(Longitudinal)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줌.
- 다음의 세 가지 기본방향을 염두에 두고 표본, 설문조사, 관리체계 등을 설계해야 할 것임.
 - 전국민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자료를 구축하여야함.
 - 학제간 연구가 가능하도록 설문지를 설계해야 할 것임.
 - 자료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내용과 형태로 구성하여야 할 것임.

2. 표본

□ 표본추출

-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의 모집단은 인구주택 총 조사의 표본조사구를 활용하여 표본이 전국민을 대표해야 함.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구를 지역별, 주택특성별로 층화함.
- 예산 제약 및 국제적 비교가능성 원칙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표본설정이 필요함.

3. 조사

□ 조사방식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패널조사를 위해 본 조사 1년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사항들을 점검하고 수정함.
-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면접타계식(face to face) 조사로 함.

□ 조사내용

- 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할 주제와 빈곤문제의 대책, 빈곤 및 공공부조정책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점검하고 설문 설계를 진행하여야 함.
- 국내외 유사자료와 비교 가능하도록 설문을 구성하며 특히 국제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문항목을 설정하여야함.
- 응답자가 충실하고 정직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설문항목과 설문지를 채택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함.

4. 관리체계

관리조직

- 행정적 지원과,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자료수집, 수집된 자료의 처리, 자료 분석, 지속적인 자료의 관리를 맡는 전문적인 팀에 의한 운영이 필요함.

추적조사

- 패널조사는 표본의 대표성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대상 표본의 탈락률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표본관리와 추적조사의 원칙이 필요함.

응답자 및 표본관리

- 패널조사는 표본탈락률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표본관리에 노력해야 함.
- 조사전문기관과 주관기관, 이들 기관과 조사원간의 장기적인 관계가 유지 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5. 자료의 관리 및 활용

자료의 관리

-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자료의 구축은 다양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음. 빈곤의 동태와 추이를 보여주는 정확한 자료를 통해 올바른 빈곤 및 공공부조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시행되는 관련 정책들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음.
- 패널자료 구축을 통해 다양한 빈곤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 우리나라 빈곤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차이, 빈곤에의 진입과 탈피, 그리고 그 인과관계도 파악할 수 있음.
- 조사 자료는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자료가 정리되고 관리되어야 함.

□ 자료의 활용

-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자료 구축으로 각종 빈곤관련정책 및 이슈연구와 활용뿐만 아니라 타 국책·민간연구원 및 정책결정기관의 연구 및 정책결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기초 자료로도 제공하여 활용이 극대화되도록 함.

VI. 결론

-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빈곤정책 수립을 세우고 현행의 공공부조 정책의 평가를 위해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자료 구축은 시급함.
-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 자료가 구축되면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와 추이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고, 사회적·경제적 변수가 빈곤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빈곤 및 공공부조 관련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높은 질적 수준의 패널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질적 수준이 높은 초기 표본이 필요함.
 - 적합한 패널 추적원칙이 있어야 함.
 -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본구성원을 성공적으로 추적해야 함.
 - 패널조사는 광범위한 웨이브 간 일치성을 점검해야 함.
 - 패널조사는 조사기간 동안 연속적인 계측이 되어야 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사회의 빈곤은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 노동시장 유연화, 국내자본의 해외 이탈 등으로 양적·질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빈곤의 양적 변화로는 경제위기 이후 빈곤층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율은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7년 3.9%에서 경제위기 직후인 1999년 8.2%로 두 배 이상까지 확대되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3년 5.3% 수준이 되었다.^{주1)} 이와 같은 빈곤율의 감소는 경제위기이후 급격히 증가한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도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빈곤층 규모는 경제위기이후 급격히 확대되었다가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경제위기전 수준으로 축소되지는 못하였다.

빈곤의 질적 변화로는 경제위기이후 빈곤의 성격이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발생하는 단순빈곤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빈곤상태에 빠져있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확대되고 있으며, 빈곤의 지속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빈곤집단인 근로빈곤층은 대부분 저숙련 노동자들로 노동시간 부족과 낮은 임금, 그리고 실업과 취업의 반복 등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지위가 그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새로운 근로빈곤층의 대두는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영향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기인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과정을 통해서 심화되었으며 앞으로도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90년대 들어 나타난 민주화운동을 통한 계층간의 평등의식의 고조, 가족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세계화

주1) 김미곤, 김태완, 『우리나라의 빈곤현황 및 정책과제』, 『사회보장연구』 제20권 제3호, 2004, 12. 참조

와 정보화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혁 등으로 억제되었던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됨으로써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특히 우리국민의 많은 인내와 고통이 요구되었던 1997년의 경제위기는 우리사회의 사회보장제도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전기가 되었다. 특히 경제위기하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실직자들을 돕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제도들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제도들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사회는 여전히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처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이유는 취약계층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토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제도들이 확대되거나 도입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빈곤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빈곤 및 공공부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빈곤층의 인적 자본형성 정도, 가족구조의 변화, 소득 및 지출 행태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의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사회통계조사 자료로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도시가계조사, 가계소비실태조사 등이 있으나 이러한 자료들은 관련내용이 개괄적이어서 구체적이 못하며 조사주기별로 표본이 변경되어 빈곤의 실태와 추이를 일관성 있게 파악하기 곤란하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계층조사, 장애인실태조사처럼 빈곤층이나 특정계층에 대한 조사들도 역시 주기적인 횡단면 조사여서 통계청의 관련조사들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편, 주기적인 횡단면 조사에 따른 일관성 문제의 해소를 위한 통계자료로 한국노동패널, 대우패널, 자활패널, 청년패널 등이 있으나 노동패널은 조사대상이 도시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조사내용도 경제활동인구의 직업이동과정과 직업선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활패널은 근로빈곤층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중앙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도 그 대상이 청년층에 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빈곤층문제 초점을 맞춘 패널자료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횡단면자료(cross-sectional data)나 특정계층을 겨냥한 제한적인 패널자료로는 현재 역동적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빈곤문제를 심층 분석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따라서 빈곤층의 경제적 행위, 신체·정신적 건강, 삶의 질, 사회보장체계 등과 같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의 구축이 시급하다.

2. 기대효과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자료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횡단면 조사자료에 비하면 노력과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 그러나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자료는 빈곤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탈빈곤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 및 공공부조관련 패널자료가 구축되면 얻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일시적 빈곤과 지속적 빈곤의 차이규명

횡단면자료에 의한 연도별 빈곤가구의 규모 및 특성은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동일한 가구들이 지속적으로 빈곤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패널자료를 분석하는 경우 사실상 상당히 많은 ‘일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빈곤에 진입하고 또한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시적 빈곤과 지속적 빈곤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빈곤의 일시적 성격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에 대한 정의만큼 중요하다. 즉, 소득을 측정하는 회계기간은 어느 수준에 빈곤선을 긋느냐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담스 외(1988년)의 연구에 의하면 분석단위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경우, 빈곤층의 반 정도가 지속적으로 빈곤하였으나, 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경우에는 약 80%정도가 지속적으로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근거한 어떠한 빈곤 측정방법으로

빈곤층을 정의 하더라도 빈곤층의 일부만 지속적인 빈곤으로 파악될 것이다. 더욱이 일년짜리 자료에 의해 파악되는 빈곤의 양태는 지속적인 빈곤의 특성을 왜곡시키게 된다. 즉, 일년짜리 단편적인 빈곤의 양상은 지속적인 빈곤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연령, 학력수준 등과 같은 지속적인 빈곤의 양태를 왜곡시키게 된다.

나. 탈빈곤 정책의 설계상의 중요성

미국의 경우 많은 빈곤층의 복지수혜기간은 일시적이다. 즉, 실직,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시작되는 빈곤은 재취업과 재혼으로 빈곤이 끝나게 된다. 이와 같은 일시적 빈곤을 위한 소득유지방법으로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불행에 대한 보험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일시적 빈곤층은, 훈련이나 다른 공공부조가 없어도, 빈곤문제를 그들 스스로 치유한다. 그러나 지속적 빈곤은, 이와는 다른 문제로, 직업의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집약적인 인적자본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비용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지속적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큰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탈빈곤 정책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다. 총량적 흐름의 파악

연속적인 횡단면 조사는 빈곤층의 크기와 빈곤층에 대한 특성들의 순변화(net change)만을 보여준다. 그러나 패널조사는 이와 같은 순변화를 만들어내는 빈곤으로의 유입과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에 대한 총량적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패널자료는 동일한 표본규모의 연속적인 횡단면자료보다 순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추계치를 제공할 수 있다.

빈곤으로의 진입과 빈곤으로부터의 이탈에 관한 총량적 흐름의 범위와 성격은 분석상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 한다

첫째, 빈곤의 진입과 탈출의 흐름과 관련된 사건을 설명할 수 있다. 이혼과 사별과 같은 가족구성의 변화, 실업과 같은 노동시장 문제 또는 장애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빈곤에 진입하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둘째, 패널자료는 빈곤의 지속기간을 종료시키는 결혼, 재취업과 같은 사건들의 중요성과 관련된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도 유용하다.

라. 사회보장체계의 성격 규명

패널자료를 이용하면 국가간 사회보장체계의 역할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가족구성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국가간 비교 분석에 있어,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이혼의 경제적 충격은 서독보다 미국에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마. 이전소득의 수급형태 파악

미국에서 빈곤으로 인하여 소득조사를 전제로 사회부조를 수급하는 가족의 규모가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많은 저소득 가족이 지속적으로 복지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인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횡단면자료는 조사시점의 수급자들의 수만을 보여준다. 따라서 만일 회고적인 질문을 횡단면 조사 설문문에 포함한다면 면접시점까지의 수급기간을 보여줄 수는 있다. 그러나 최선의 분석은 이전소득의 완벽한 수급기간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패널자료로부터만 획득이 가능하다.

복지프로그램 수급의 시작과 종료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총량적 흐름을 분석하는 데는 가족구성의 변화가 노동시장의 변화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이혼은 복지프로그램 수급기간의 시작과 관련된 가장 흔한 사건이며, 결혼은 복지프로그램 수급의 종료와 관련된 가장 흔한 사건이다.

바. 노동시장 경력 파악

빈곤상태에 있는 가구에 있어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가구구성원의 노동시장활동에 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하며, 노동시장활동과 관련된 지식은 많

은 면에서 패널자료를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 횡단면조사 자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고되었는지는 보여주지만 실업상태의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줄 수 없다. 장기실업과 단기실업을 구분하는 것도 지속적인 빈곤과 일시적인 빈곤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만큼 매우 중요하다.

여성들은 보통 가족과 자신의 경력에 대한 책임을 슬기롭게 조화시켜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여성들이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경력개발에 어느 정도나 방해가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하려면 출산전후의 고용과 수입에 관한 종단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사. 세대간 연구 가능

자식에 대한 빈곤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은 빈곤을 계측하는 적합한 방법에 관한 EC의 논박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최선의 빈곤계측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구관심이 성장한 아이들의 경제적 성공과 같은 결과에 대한 효과를 고려해야만 한다. 특히 빈곤가정에 대한 장기패널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분석적 이점은 아마 세대간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종학력, 직업상태, 젊은 층의 수입을 그들 부모의 교육 및 직업적 성취정도와 연계시키기 위한 회고적인 횡단면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오랫동안 실시되었다. 그러나 만일 유아빈곤이 이러한 결과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기 원한다면 회고적인 자료는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회상으로는 소득에 대한 신뢰할 만한 수준의 자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아빈곤은 초기성년의 성취에 매우 중요한 부정적인 빈곤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부모의 학력과 직업적 성취정도의 차이를 통제 후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대간 연구는 ‘복지의존성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이되는가’ 라는 핵심적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다.

아. 정책변화에 대한 평가수단 제공

패널자료는 정부정책 또는 경제적 여건 변화와 관련된 표본가구와 개인의 경제적, 인구학적 조건에 대한 여건 변화 전후의 직접적인 관측치를 제공한다. 정책 변화에 따른 분배측면의 단기충격이, 비록 동일시점의 다른 경제적, 정치적, 사회인구학적 변화와 혼재되어 있긴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관측될 수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설문서를 통하여 원래의 조사목적과 조화가 되는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패널조사기간 동안 일어나는 새로운 관심영역을 탐색할 수 있다.

자. 대표적인 횡단면 자료로서의 패널

적합하게 설계된 가구패널조사는 패널표본이 추출된 모집단을 지속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확률표본을 갖고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집단은 출생, 이민 등으로 모집단의 개체가 증가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혼이나 자녀들의 분가는 새로운 가구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민을 제외하고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모집단에서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동일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에 반영이 된다. 따라서 확률표본 내에서의 출생은 모집단내에서의 출생에 대한 확률표본을 구성하게 된다. 유사하게 이혼이나 자녀의 분가를 통한 확률표본 내의 새로운 가구는 모집단내의 새로운 가구의 확률표본을 구성하게 된다.

만일 누구를 추적할 것인가와 가중치와 관련한 적합한 원칙이 마련되고, 또한 이탈률(attrition rate)이 과다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변화한다면, 가구패널조사는 모집단을 지속적으로 대표할 수 있을 것이다. 패널조사 자료의 대표성 문제는 독립적인 횡단면 조사와 패널자료의 웨이브(wave)의 구체적인 비교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면에서 적정하게 설계되고 조사된 가구패널은 횡단면적인 정보와 종단면적인 정보를 모두 제공할 수 있다. Duncan(1984)의 연구에 의하면 놀랍게도 패널조사의 실사비용은 비교 가능한 횡단면조사자

료 시리즈의 조사비용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횡단면 조사비용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조사원이 참여응답자들을 접촉하고 설득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들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차. 행태모형 추정상의 분석적 이점

일시적 빈곤과 지속적 빈곤, 그리고 빈곤으로의 총량적 유입과 빈곤으로부터의 총량적 탈피에 대한 단순한 기술(simple description)과는 별개로 연구자들은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행태모형(behavioral model)을 추정하고자 할 수도 있다. 패널자료는 행태모형 연구목적에 위해서 몇 가지 분석상의 잠재적인 이점이 있다. 첫째, 패널조사는 행태모형 연구자들이 많은 양의 연속적인 경제적, 인구학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와 같은 연속적인 정보는 사건의 이력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적 모형을 많이 개발할 수 있다. 연속적인 추정치들은 이전소득 수급자들의 수급기간 분포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빈곤과 복지수혜뿐만 아니라 편부모, 실업 그리고 지리적 이동과 같은 현상에 대한 좀 더 풍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둘째, 일련의 독립변수들과 어느 특정 종속변수의 수준(level)차원의 변수 간 인과관계에 대한 횡단면 자료 모형과 비교할 때, 변화분(change)을 사용하는 모형은 관측되지 않는 개인 간의 차이로 발생한 혼재된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빈곤상태는 관측되지 않는 유년기 환경과 같은 이면적 요인(background factor)들과 함께 미래 지향성과 개인적인 효과성에 대한 느낌과 같은 측정된 심리적인 특성들의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 빈곤상태의 변화와 심리적인 태도의 변화를 연계시킨 모형은, 특정 조건하에, 관측되지 않은 이면적 요인의 효과를 제거하고 관측된 심리적 특질이 효과에 대한 편의(bias)가 감소된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우선 패널조사와 패널자료의 개념과 특징을 파악하고, 선행문헌연구를 통해 빈곤문제의 파악에 패널자료가 효과적인 이유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기존 국내 빈곤 및 공공부조 관련 횡단면 조사와 국내·외 패널자료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미 선진외국에서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을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외 패널들의 분석으로 기존 국내 패널들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구축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빈곤 및 공공 부조 패널구축의 초안을 마련할 것이다.

연구내용은 1장에서는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자료 구축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고, 2장에서는 패널자료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패널자료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다. 3장부터는 기존자료들의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3장에서는 국내의 빈곤 및 공공부조 관련 자료라는 관점에서 국내 횡단면자료 현황을 비교 검토한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하는 조사자료는 최저생계비계측조사,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장애인 실태조사, 노인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차상위계층의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및 의료급여 확대방안에 대한 조사자료 등이다. 4장에서는 패널자료의 특성, 조사 및 관리체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외의 패널자료들을 비교분석한다. 즉 미국의 가구패널인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와 노동패널인 NLS(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Labor Market Experience), 영국의 가구패널인 BHPS(The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독일의 가구패널인 GSOEP(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 그리고 국제 비교 프로젝트인 PACO 프로젝트와 LES(Luxemburg Employment Study) 프로젝트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관련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패널 구축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II. 패널자료의 특징

1. 패널자료의 개념

경제분석 및 정책결정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로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와 횡단면자료(cross-section data)의 두 가지가 있다.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는 어떤 변수 값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거시경제의 분석에 주로 사용되며, 시행된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추세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횡단면자료(cross-section data)는 어떤 일정한 시점에서 각각의 관찰표본(sample)들이 어떤 값을 지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로 미시적 정책분석에 주로 사용되며, 일정 시점의 특정 사건의 상태와 영향을 세부적으로 관찰 할 수 있는 자료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시계열자료의 성격과 횡단면자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패널 자료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패널자료(panel data)는 ① 동일한 개인 및 가구들을 표본으로 하며, ② 이들을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하고, ③ 일정기간(1년 또는 격년)마다, ④ 동일한 질문을 하여 얻어지는 자료를 말한다. 패널데이터는 미시적 표본자료라는 점에서 통상 거시적 전수조사자료인 시계열자료와는 다르며, 조사시점에 관계없이 조사표본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사시점마다 표본을 변경하는 통상적인 횡단면자료와는 성격과 정보의 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처럼 통상의 시계열자료나 횡단면 자료와 구별하는 차원에서 패널자료는 흔히 종단면자료(longitudinal)라고도 하며, 이 두 용어는 동의어로 흔히 사용된다. 즉, 패널자료는 특정 현상에 대해 입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미시적·동태적 정보라는 점에서 통상의 자료와 구별되고 있다.

패널조사(Panel survey)는 조사대상을 고정시키고 동일한 조사대상에 대하여 동일질문을 반복 실시하는데, 이때 고정된 조사대상을 패널이라 한다. 이러한 조사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데이터는 개인행동의 변화과정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패널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모든 조사와 마

찬가지로 패널로 선택된 응답자 집단이 연구하고자 하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 조사는 본래 시장조사에서 소비자의 소비행동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최근에는 여론의 형성과정과 변화과정의 연구, 직업이동의 궤적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노동패널), 빈곤과 탈빈곤 과정에 대한 연구(빈곤패널) 및 퇴직·고령화 과정 연구 등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패널자료를 통해 가능한 연구로는 일시적인 빈곤과 지속적인 빈곤의 중요한 차이 구분, 빈곤의 시작과 끝에 관련된 사건의 파악, 빈곤탈출 프로그램 참가유형 조사, 실업·이민자들과 일시적 실업자들의 경제적 흡수 등 노동시장 경력에 관한 평가, 빈곤과 복지 의존성에 대해 세대간 영향력 파악, 사회 근로계층간 소득격차 파악 등이 있다.

2. 패널자료의 특징

가. 패널자료의 장점

패널자료의 장점은 첫째, 동태적(dynamic) 성격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특정 시점에서의 관심이 있는 현상의 양태를 보여주는 횡단면자료로는 파악이 불가능한 특정 시점간의 전환과정(transition process)을 보여준다. 시간의 경과 및 정부정책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 또는 가구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양식이 어떻게 변동해 가는지 그 동태적 변화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 물론 횡단면 조사에서도 회상조사(retrospective survey)를 통해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먼 과거의 사실에 대한 회상 자체가 불완전(회상편차 recall bias)하므로 자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패널조사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주기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동일사건의 영향을 계속 포착함으로써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금재호, 1998).

둘째, 특정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가능케 한다. 패널자료는 특정기간 효과, 특정연령 효과, 그리고 동시태생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주2)

셋째, 빈곤에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학문분야의 접근이 가능하여

보다 높은 지식기반의 구축을 가능케 한다. 패널자료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회적 배경(가족 등 인구학적 배경, 교육·문화적 배경, 건강, 기대심리, 경제적 배경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므로 다른 사회조사와는 달리 개인의 변화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세밀하게 수집하게 된다. 따라서 빈곤이라는 현재의 동일한 현상을 경제학, 사회학, 인구학, 심리학, 보건학 등 다양한 학문적 도구를 통한 접근(설명)이 가능함으로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넷째, 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개인에 대해 주기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추적 조사형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과거의 사회적 환경이 현재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전망하고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추적조사 자료는 공공부조제도가 빈곤계층의 경제문제, 가족문제, 의료문제, 빈곤의 탈피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로부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패널자료가 가지는 장점을 빈곤 및 공공부조정책 수립에 활용할 때, 특히 그 효과성은 커진다. 빈곤 및 공공부조 정책 수립에 패널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일시적 빈곤과 순환적 빈곤의 차이점의 비교가 가능하다. 패널 자료를 통해 단기적인 가구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는 일시적 빈곤과 장기적 빈곤의 특징들을 다년간에 걸친 자료들의 비교 연구를 통해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횡단적인 각 가구에 대한 정보들은 빈곤가구 수 또는 빈곤가구의 특징들을 보여주지만 다년간에 걸친 빈곤상태의 변화는 알 수 없으며 심층적인 빈곤가구의 특징은 수집된 다년간의 자료들을 비교해야만 알 수 있다.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자료를 통해 전체적인 빈곤가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자료에 대한 횡단면적 비교 연구는 빈곤가구수와 빈곤가구의 특징의 변화상만을 제시하지만 패널조사연구는 빈곤의 시작과 해소를 가져오는 원인과 사건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제도를 분석하고 평가해 볼 수 있다.

주2) 특정기간 효과(period specific effect)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나 주어진 특정기간 내에서는 모든 응답자들이 동일한 경우를 지칭하며, 특정연령 효과(age specific effect)는 연령에 따라 변화하지만 특정 연령의 응답자들에게는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동년배 효과(cohort effect)는 어떤 특정한 기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동일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에는 상이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공공부조 수급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빈곤으로 말미암아 소득조사를 조건으로 공공부조를 받아온 빈곤 가구는 여전히 복지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가구 중 1/3은 1~2년 동안만 수혜를 받고, 비슷한 분포의 빈곤가구가 장기적으로 공공부조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조 수급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빈곤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빈곤가구의 취업상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노동시장은 빈곤가구에게는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사항인데 패널자료 조사는 노동시장·활동에 대한 가구 구성원들의 지식을 조사함으로써 빈곤과 실업의 지속기관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빈곤가정의 세대간 연구가 가능하다. 빈곤가정에서 자란 아이에 대해 빈곤이 아이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은 빈곤패널 조사 중 세대간 연구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유년시절의 빈곤에 대해 다루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부모의 초기능력에 대해 빈곤이 미치는 해로운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고, 또한 부모의 학력과 직업능력에 따른 차이점들을 조정해 가면서 연구할 수 있다. 특히 복지 의존성(welfare dependence)이 대물림되느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나. 패널자료의 단점

패널자료의 단점으로는 첫째 조사에 비용이 많이 들며, 둘째 표본 이탈로 인한 대표성의 상실과 그에 따른 데이터의 질에 대한 것이며 셋째, 자료의 활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패널자료는 자료의 목적과 활용 의도에 따라 조사기간을 정하지만 동일인을 일정 기간동안 추적조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사비용이 동일한 규모의 횡단면 자료 조사비용보다 많이 든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정기관의 비용으로 조사를 하기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주3)}

주3) 미국의 NLSY 의 경우에도 미국 BLS의 재정 지원 하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노동연구원의 KLIPS는 노동부의 재정 지원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패널조사가 다른 조사보다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금재호, 1998). 표본 추출, 설문지의 구성 등과 같은 조사 설계가 결정되면 패널조사가 진행되는 한 이를 변경하기 어렵다. 따라서 표본추출, 설문지 작성 등과 같은 사전준비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며, 본 조사 이전에 예비 조사(pilot survey)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해진 패널이 응답을 거부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이사 또는 분가 등의 이유로 표본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표본 유지 및 관리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정기적으로 조사 대상 가구 및 개인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선물이나 안부 전화, 연하장 등도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설문내용이 고용 및 소득에 관한 민감한 내용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면접원들이 면접조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면접원에게 지불되는 수당도 일반 조사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된다. 조사를 통해 매년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기 때문에 패널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리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둘째, 패널조사는 일반적으로 횡단면적인 데이터보다 대표성의 문제가 심각하다. 패널데이터에서 표본의 대표성은 복수년도의 횡단면적인 데이터들이 동시에 대표성을 유지해야만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1차 년도에 임의로 추출한 가구가 100% 응답해야 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모든 가구들이 계속 응답해야 한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모집단의 변화도 표본에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모든 개인이 응답하는 경우는 드물며, 또한 면접원의 실수, 설문지의 오류, 응답자의 거부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표본의 대표성을 손상시키게 된다. 게다가 연구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주4)

셋째, 패널조사는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질문을 포함한 매년 다른 종류의 질문을 물어봄에 따라 자료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지며 통계처리에 미숙한 이용자들에게는 자료 접근(access)이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주4) 따라서 케를 S. 에인스웬셀과 그의 동료들이 패널 연구를 통해 라틴계 청소년과 비라틴계 청소년의 성 행위를 비교할 때, 서베이 이탈자들이 미국에서 출생한 라틴계와 멕시코에서 출생한 라틴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라틴계와 비라틴계간 차이에 대하여 잘못된 결론을 피하려면 이런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우리나라의 빈곤 및 공공부조 관련 횡단면 자료 현황

1. 최저생계비 계측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 개요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이것은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와 사회적 여건의 변화, 그리고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 가구특성 등에 따라 변한다. 최저생계비는 5년 주기로 조사하도록 규정하여 2004년에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04년 이후에는 3년마다 계측하도록 변경되었다.

기존의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이므로 노인가구, 장애인 가구, 모자가구 등의 가구원의 특성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주거 점유형태에 따른 최저생계비가 계측은 되었으나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2004년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최저생계비를 발표할 예정이며,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모형을 개발하여, 계측된 최저생계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 활용방안과 사회복지서비스제도와 연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나. 표본

인구센서스 조사구를 표본추출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별로 구분한 후 총 30,000가구를 추출하여 1차 예비조사를 하였다. 2차 본 조사는 1차 조사의 소득분위 일정구간에 해당하는 4,000가구로 가계부 기장 2,000가구,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2,000가구이다.

다. 조사

조사지역은 전국이고 가구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복지서비스 대상에게는 가구원 조사도 병행한다. 1차 예비조사는 본 조사 조사대상 가구 선정 및 주관적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고 2차 본 조사는 저소득층의 가계수지, 소비실태,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마켓바스켓(market basket) 설정을 위한 필수품 여부, 소비품목의 질, 사용량, 내구연수 등을 파악한다.

조사할 내용은 가구일반사항, 소득, 재산 및 부채, 비목별 소비지출현황, 식료품 마켓바스켓 구성을 위한 식단조사, 주관적 최저생계비 파악을 위한 비목별 최저욕구조사, 상대적 최저생계비 파악을 위한 박탈지표이다.

라. 관리체계

1차 예비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한다. 2차 본 조사는 가계부조사와 생활실태조사로 구분된다. 가계부조사는 조사대상가구가 직접 기재하는 자기기장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조사지도원이 점검하는 방식이고, 생활실태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는 면접조사방식이다.

합리적인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하여 조사 설계, 조사표 작성, 조사 결과 검토 등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정책담당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기초보장 전문위원회”에서 최저생계비 계측과정 및 활용방안에 대한 심의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2. 차상위계층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절대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이 제도적으로

는 보장되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차상위계층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다. 소득불평등 상태의 완화 및 사회통합을 위하여 저소득층, 특히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으나 기초보장을 수급하지 않는 취약한 여건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비수급가구를 차상위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차상위계층 설정 기준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 차상위계층의 유사개념인 저소득층, 근로빈곤층, 취약계층의 개념을 정리하고, 차상위계층의 범위 설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차상위계층의 특성 및 복지욕구에 따른 적절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이 계층에 대한 정책수립의 근거를 제공하고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설계방향을 모색한다.

나. 표본

1차 기초조사의 대상은 전국에서 무작위표본 추출된 3만 가구이며, 2차 심층조사의 대상은 1차 조사 가구 중 차상위계층 이상의 계층 1,000가구, 차상위계층 2,500가구, 기초보장 수급가구 500가구를 비동일 확률표집 한다. 추가조사의 대상은 1차조사 대상가구 중 표본추출한 신청탈락가구와 기초보장 선정기준에 근접하는 가구 중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한다.

다. 조사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는 1차 기초조사와 2차 심층조사, 추가조사로 구성된다. 1차 조사는 차상위계층 판별조사로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조사이며 2차 조사의 표본추출과정에 활용된다. 2차 조사는 차상위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등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한다. 즉 생활실태파악을 위해 가구여건, 건강실태, 소득실태, 공공복지수급실태, 사회적관계망 및 민간복지수급실태를 조사하고, 복지욕구 파악을 위해 경제적 지원 욕구, 서비스

육구, 근로 육구 등을 조사한다.

추가조사는 수급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특성을 집중분석하여 우선 정책대상의 규모 및 실태, 육구 등에 대한 추가적인 파악을 시도하며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접근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라. 관리체계

1차 조사에서는 조사원이 가구방문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가구 일반현황, 지출 및 소득, 자산, 상대적 박탈 등의 생활실태 관련지표를 조사한다. 2차 조사에서도 조사원이 가구방문 면접 조사를 하며, 추가조사는 조사원 방문 면접 조사 및 전담공무원 현장 조사방식으로 사례가구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 가구실태 및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심층조사를 한다.

3.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육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 개요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들의 제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복지육구를 파악한다. 동시에 비노인 층에서의 복지육구 또한 파악함으로써 단기적인 노인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현세대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사회·신체적 특성 및 각 부문의 육구를 파악하여 노인복지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표본

표본조사구 추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 157개 표본 조사지역을 추출하였다. 1998. 4. 13~5. 31. 기간 중 9,355가구의 가구조사를 했

고 65세 이상 노인 2,535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조사구의 크기는 평균 65가구 정도이며, 조사원은 이들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조사표를 작성하고 그 가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각각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조사

각 시·도의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조사대상지역으로 하였다. 조사는 가구 조사와 개인조사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다. 가구조사는 가구내의 모든 가구원의 개인특성과 가구의 가족생활을 응답해 줄 수 있는 가구원으로 가능한 한 가구주나 가구주의 부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개인조사는 가구 내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고 가구 내에 2명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경우 노인 모두에 대하여 조사가 실시되었다.

가구조사는 가구원 사항, 가구주 관련사항, 부모접촉 연락 관련사항, 주택소유 및 경제상태, 노후생활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외상가구원에 대한 부양을 조사하였다. 개인조사는 노인의 일반특성, 가족관계, 경제상황, 부양의 교환, 건강 및 의료, 사회참여, 복지서비스를 조사하였다.

라. 관리체계

연구진이 설계한 조사표를 기초로 사전 훈련된 전문조사원 52명(조사원 3명과 지도원 1명으로 구성된 13개 팀)에 의해 실시되었다. 조사원이 사전에 표본 추출한 조사지역의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를 하였다.

4. 차상위계층의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및 의료급여 확대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 개요

우리나라 국민은 제도상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 의료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가 그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됨으로써 의료욕구가긴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중 희귀난치성이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의 의료이용이 제약받고 있다. 따라서 소득빈곤과 의료 빈곤의 객관적인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저소득층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며 의료욕구가 큰 저소득층의 규모를 파악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 선정 및 관리,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관리운영체계 개선작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저소득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기초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표본

무작위표본추출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1차 조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150개 조사구에 15,040세대를 1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표본 중 보험료 기준 하위 30%내에서 1,800세대를 2차 표본으로 선정하되 임의추출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임의 추출방식을 통하여 소득 추정 및 의료욕구 심층 대면조사를 하였다.

다. 조사

차상위 계층 대상 의료급여 확대를 위하여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한 1차 탐색조사와 이를 토대로 2차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간 소득차이 정도 및 의료실태와 욕구를 구분

하여 파악하였다. 실태조사에서는 가구여건, 건강실태, 소득실태를 조사하였다. 욕구조사에서는 의료관련 간접적 욕구인 간병, 교통 서비스 등에 대한 욕구와 의료관련 직접적 욕구인 예방, 진료,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정도, 약제비 등을 조사하였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차상위계층간 형평성 검토를 통한 기준을 설정하였고 수급권자 확대에 따른 세부 실행방안 및 소요예산을 추계하였다.

라. 관리체계

1차 탐색조사는 전국의 행정전산망 정보를 활용하여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하였다. 1차 조사는 1차 표본을 선정하고 해당 세대의 진료실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획득하여 의료실태를 분석한 후, 그 중 의료빈곤층이나 취약계층(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가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으로 판단되는 1,800세대를 2차 표본으로 추출하여 2차 조사에는 현지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5.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 개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 보건·의료, 사회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아왔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매 5년마다 장애인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실태조사의 일차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장애인들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장기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장애인구수 및 출현율, 장애인의 사회 인구학적·경제적 특성,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장애인의 복지욕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혜 실태 등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있다.

나. 표본

가구표본조사는 특수사회시설을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되었고 표본의 크기는 200개 지역, 지역 당 220가구로 약 44,000가구이다. 표본추출방법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추출하였다. 사회복지시설조사는 875개 사회복지시설로 거주자 약 8만 3천여 명을 전수조사 하였다.

다. 조사

가구조사와 장애판별조사, 활동제약자 개별조사,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조사로 구분된다. 가구조사는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직업, 소득수준, 가구규모 등을 조사하였고 장애판별조사는 법정장애와 향후 범주 확대 장애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활동제약자 개별조사는 장애별 특성, 주된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호여부, 여가 및 사회활동, 경제상태, 생활만족도 및 생활환경, 등록제도 및 복지서비스, 교육, 취업 및 직업재활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조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일반현황과 거주 장애인의 성·연령, 장애유형, 장애등록 여부 및 등급을 조사하였다.

라. 관리체계

장애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3명의 조사원과 지도원으로 짜여진 조사팀이 구성되었는데 모두 20개 팀이 장애인 실태조사에 동원되었다. 조사원은 직접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에 의거, 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지도원은 각 조사팀의 조사원에 대한 현지 지도 및 감독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지도원은 현지 조사구 내 표본가구의 조사원별 업무할당, 조사결과의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가구표본조사는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조사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조사는 우편설문조사로 실시하였다.

6. 시사점

이상과 같은 빈곤 및 공공부조관련 횡단면조사 자료들은 주기적으로 조사되는 자료들은 조사시점에서의 빈곤층의 실태에 관한 규모, 생활수준, 빈곤원인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들 자료들의 시점 간 변화에 대한 총량적인 분석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횡단면 자료들은 빈곤의 동태적인 측면, 빈곤으로의 진입과 퇴출, 일시적빈곤과 지속적빈곤의 구분,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등과 같은 효율적인 빈곤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들은 제공할 수가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빈곤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이들 빈곤 및 공공부조와 관련한 패널자료의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IV. 국내·외의 패널데이터 및 국제비교 프로젝트 현황

1. 국내 패널데이터

가. 대우패널(한국가구패널: Korea Household Panel Survey)

1) 개요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주관하였으며 자체예산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목적은 대우경제연구소가 아시아 최초로 실시한 가구패널조사로서 동일한 가구 및 개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제활동을 파악하고, 가구와 가구원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제 변수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정부정책을 포함한 각종 환경의 변화가 가구와 가구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하여 가구와 가구원의 행동양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2) 표본

표본추출은 다단계 층화확률표본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일반가구 8,236가구를 선정하였고, 1차년도 조사에서 선정된 가구의 55.2%인 4,547가구에서 패널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표본관리의 부실 등으로 인한 탈락률의 증가로 표본수는 점차 급락하여 제4차년도의 조사가 완료된 시점(1996년)에는 2,833가구만이 남게 되었다.

3) 조사

설문지는 가구용 설문지와 개인용 설문지로 구분된다. 가구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상황을 파악하는 가구용 설문지는 한 가구에서 가구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을 가장 잘 아는 가구원에 의하여 응답되며, 그 가구에 속한 18세 이상의 모든 개별가구의 경제활동상황을 파악하는 개인용 설문지는 그 가구에 속한 18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이 응답한다.

가구용 설문지의 조사내용은 가구 및 주거에 관한 사항, 가구 연간 총소득, 가구 경제상태 평가, 가구 연간 소비지출, 금융상품 보유현황에 대한 것이고, 개인용 설문지의 조사내용은 개인의 상황, 봉급생활자의 경제활동, 자영(자유)업자, 농림수산업자, 비정규직·미취업자 등의 경제활동, 직장 및 직업경력에 대한 내용이다.

4) 관리체계

조사주기는 매년이며, 대우패널조사는 1992년 9월부터 1년 동안 준비단계를 거친 뒤 1993년 9월에 패널조사를 시작하였다. 그 후 제 5차년도(1998년)의 패널조사를 완료한 후 대우경제연구소의 해산으로 조사가 중단되었다. 조사설문지 구성, 데이터의 분석, 보고서의 작성 등 총괄작업은 대우경제연구소의 패널팀에서 담당하였다. 실제 설문조사는 조사전문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다.

조사요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재하는 면접타계식 조사로 진행되어 훈련된 면접원이 조사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내용을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개별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5) 대우패널조사의 문제점

먼저 예산부족으로 면접비, 선물 및 편지 등 표본관리비용, 결혼 및 이혼 등 분리된 가구의 추적 비용 등을 충당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담당자의 기타 업무로 인해 패널연구 집중도가 저하되어 패널업무에 대한 집중도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조사용역회사 사용의 문제로 조사회사와의 원활한 상호협조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타 응답자 관리의 불충분, 면접원 관리의 부실, 설문지의 문제점(양이 너무 많아 응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데이터 관리의 미비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나. 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1) 개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하였으며 고용보험기금에서 조사비용이 지원되었다. 조사목적은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과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를 통해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고용보험)의 수립과 평가에 기여하고자 실시하였다.

2) 표본

조사대상은 도시지역의 일반근로자가구(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이며, 1차 조사시의 조사성공 표본 규모는 5,000 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가구원 13,000명이었다.

표본추출은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전국 21,938조사구)로 하였으며, 조사구 추출방법은 계통추출방법을 사용하여 21,938조사구 중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도시지역만을 층화하여 1,000개의 조사구를 선정하였으며 층화기준은 지역 우선, 그리고 동일 지역 내에서는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층화방법을 채택하였다. 조사구가 추출될 확률은 지역에 상관없이 5.3%이다. 표본추출은 각 조사구 내에서, 1997년 고용구조 특별조사에서 조사 성공한 가구들 중 무작위추출(random sampling)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5~6가구 선정하였다.

3) 조사

설문지는 개인용 설문지와 가구용 설문지로 구성되며 개인용 설문지는 조사대상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구성원이 응답자가 되며, 가구용 설문지는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를 응답자로 하되, 가구주와 그 배우자가 응답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구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가구구성원을 응답자로 한다.

내용은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과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

회생활 등을 다룬다.

4) 관리체계

1997년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1998년 본 조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매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방법은 면접타계식을 원칙으로 하는데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이다. 유치조사방법을 함께 활용하는데 심야귀가 등의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설문지에 한하여 유치조사방법이 사용가능하다.

노동연구원의 고용보험연구센터에서 총괄하여 데이터관리 및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실사업무는 민간의 조사전문기관에 위임하였다.

5) 노동패널조사의 문제점

조사대상지역이 도시지역에 국한되어 있어서 전국적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조사대상가구가 근로자가구로서 소득이 있는 계층인 자영업자와 농민 등이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표본으로는 빈곤층 비율이 높은 계층이 표본에서 제외되어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자료로서는 대표성이 없다. 또한 설문지가 주로 근로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빈곤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는 미흡하다.

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활패널

1) 개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관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였다. 조사목적은 노동시장이 양극화되면서 빈곤계층이 증가하고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 상황에서 빈곤계층의 규모 및 욕구에 관한 객관적 자료와 빈곤관련 동태적 자료의 부재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지원제도 등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저소득층의 욕구와 규모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확보, 저소득층의 생활 실태 및 자활과정 등을 파악함으로써 자활지원정책과 더 나아가 빈곤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2) 표본

1차 조사대상과 2차 조사대상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차 조사대상은 전국적으로(섬지역 및 시설 단위 조사구 등은 제외) 177개 표본조사구에 거주하고 있는 10,114가구의 30,033명에 대하여 빈곤계층을 파악하는 등의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의 대상은 파악된 저소득 가구(2002년 중위소득의 60%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가구) 1,125가구 및 그 가구에 속한 근로가능인구(15~65세 미만) 1,763명에 대하여 심층 조사하였다.

표본조사구 추출을 위한 기초자료는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조사의 조사구별 집계결과 파일을 활용하여 행정구역에 따라 5개 지역으로 층화한 다음, 각 층에서는 주택특성에 따라 조사구를 분류하였다. 전체조사구 중(인구주택 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 25,300가구)크기의 척도에 비례하는 확률로 177개 조사구를 계통추출하고, 표본가구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3) 조사

1차 조사는 빈곤가구 및 빈곤층(개인) 판별용 조사표를 사용하였으며 가구 및 개인용 조사표로 구분되어있다. 가구용 설문지는 가구원 수 및 주거상황, 월 평균 가구 총소득, 재산, 부채, 사회보장(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수급여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개인용 설문지는 성, 연령, 학력, 혼인상태 등 일반현황과 소득, 사회보험 가입 및 수급현황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2차 조사는 빈곤가구에 대한 심층조사로 가구용 조사표와 개인용 조사표로 구분되며, 개인용 조사표는 다시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용으로 구분된다. 가구용 설문지는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과 구성, 저축실태, 가구여건(보

육, 양육, 간병실태 등), 사회복지(공공부조 수급이력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개인용 설문지는 공통적으로 직업능력, 취업욕구, 고용서비스(직업훈련, 자활지원서비스, 취업 및 창업경로 등), 개인적 특성(성장, 학력, 경험 등)을 조사하고 집단별 특수질문으로 구성되어있다.

4) 관리체계

조사는 사전에 훈련된 전문조사원이 직접 대상자를 방문하여 면접타계식으로 설문조사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총괄, 현지조사 지도·감독, 데이터 처리·관리 및 조사보고서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동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선발·채용한 전문조사원이 실사업무, 데이터 편집, 코딩작업 등을 수행한다.

5) 자활패널조사의 문제점

조사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서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샘플링된 패널이 현재의 저소득 근로가능 인구로만 타겟팅되어 표본내의 빈곤층의 변화는 파악될 수 있으나 새로이 빈곤층으로 진입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

라. 산업인력관리공단 중앙정보고용원 청년 패널

1) 개요

노동부의 예산지원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였다. 조사목적은 학교로부터 직업세계로의 진입과정(school to work)과 노동시장경로(career path)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개인의 교육·훈련 욕구 및 노동시장 내 수요(희망직업 등)를 주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정책(진로 및 취업알선)의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특히 청년층의 노동력 수급 불균형(청년 실업)의 원인과 그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및 인력수급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표본

대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를 위해 선정된 50,000 가구 중 15~29세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그 개인이다. 표본추출은 조사구별 무작위 추출을 사용하여 20%인 약 10,000가구와 그 가구의 15~29세 연령대의 가구원을 추출한다. 1차 년도에 확정된 표본은 전국적으로 15~29세 사이의 청소년 및 청년층 8,296명과 그가 속한 대표가구 6,487가구이다.

3) 조사

가구용 설문지와 개인용 설문지지로 구분되며 가구용 설문지는 가구의 구성, 가구 주거형태, 소득관련항목 등을 조사한다. 개인용 설문지는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중·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자용 및 미취업자용 설문지로 구분하고 기본적으로 교육 및 취업진로, 직장경험, 직업관, 취업준비 등을 조사한다. 각 대상자 유형에 따라 질문내용이 다르다.

4) 관리체계

산업·직업별 고용조사의 부가조사형태로 2001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매년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면접타계식 설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전화조사도 병행한다.

관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부설기관인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총괄하고 데이터 관리 및 조사보고서를 발간하며 실사업무는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사무소의 직업상담원이 진행한다.

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고용패널

1) 개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하며, 조사목적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대표성을 갖는 청년층의 교육관련 정보를 충분히 생성하면서 교육과 노동시장간

의 관계를 보다 밀도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표본

대상은 중학교 3학년생(2,000명)과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생(2,000명),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2,000명)이다. 이들 조사 학생의 학부모와 담임선생, 학교행정가를 동시에 조사한다.

표본추출은 1차 웨이브에서는 1단계에서 전국을 지역별로 층화(stratification) 하고(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유형별로 층화), 2단계에서 지역별 학생수 비중에 따라(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유형별 학생수 비중에 따라) 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학급 및 학생을 추출하는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한다. 모집단은 전국의 시읍면지역에 위치한 31명 이상의 3학년이 있는 4,209개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이다.

3) 조사

학교, 학생, 가구 설문지로 구성되면 학교설문지는 일반현황, 학생평가, 담임교사, 일반적 사항을 조사한다. 학생설문지는 학교생활, 가정생활, 학업성취, 진로계획, 진로지도, 재학중 근로, 자아관·직업관, 일반적 사항을 조사하며, 가구 설문지는 가구원현황, 생활환경, 교육환경, 경제활동 및 자기개발, 가구소득을 조사한다.

4) 관리체계

학생과 담임선생, 학교행정가를 먼저 1:1 면접타계식으로 조사하고, 여기에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학부모를 찾아가 1:1 면접타계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학생의 학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의 종이와 연필을 이용한 조사에 대신하여, 국내 최초로 PDA를 통한 조사 방식을 도입하였다.

5) 교육고용패널의 문제점

2004년에 처음 조사가 시작되어 현재 1차년도 자료만 갖추고 있어 아직 패널 자료로서의 활용정도는 낮다.

2. 국외 패널데이터

가. 미국

미국의 대표적인 패널데이터에는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와 NLS(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Labor Market Experience)가 있다. NLS와 PSID의 개요를 간단하게 다루고 이어서 PSID를 중심으로 미국의 패널데이터를 보고자 한다.

1) NLS 개요

NLS는 미국의 대표적인 노동관련 패널조사로 1966년에 시작되어 미국 노동성의 노동통계국(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CHRR(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에서 주관하고, 시카고 대학의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에서 그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초 조사대상은 45~59세의 남성, 30~44세의 여성, 14~24세의 젊은 남성, 14~24세의 젊은 여성의 4집단으로 하였다. 각 집단마다 각각의 그룹은 일정한 시기에 태어난 각 그룹에 해당하는 모든 미국인을 대표하여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 표본집단에서 얻어진 결론이 모든 미국인에 대한 결론이 되도록 선택되었다.

NLS는 각 집단마다 5,000명 이상씩 총 20,000명 이상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NLS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개인면접조사방식을 사용하였고, 전화인터뷰는 10%정도에 불과하였다. 전화인터뷰는 응답자를 지치게 하고 특히 인터뷰가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응답자의 흥미가 급속히 줄어들기 때문에 실

용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었다.

NLS의 일차적인 목적은 각 집단에 대한 노동경험(현재의 노동력, 고용상태, 과거의 노동경험, 현재와 마지막 직업의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밖에 노동 시장 참여에 잠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데 여기에는 교육·훈련에의 투자, 거주지의 지리학적인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노동시장 여건, 부모로부터의 공식적인 지원, 현재의 결혼상황 및 가족부양 책임, 일과 관련된 태도 및 열망, 건강상의 문제나 직업차별 등 잠정적으로 노동참여를 제한하는 요인 등이 포함된다. NLS는 거의 모든 방면에 걸쳐서 질문하고 있으며, 그 질문 수는 5,000여개에 달한다.

초기에 시작한 조사 중 45~59세의 남성집단에 대한 조사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사망하거나 은퇴함에 따라 1990년을 마지막으로 중단하였다. 또한 젊은 남성에 대한 조사도 1981년 이후 중단되었으며, 성인여성과 젊은 여성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초기에는 4개의 집단에 대해 5년 동안 조사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높은 퇴직률과 연구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초기 4개 집단의 조사를 계속할 것과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하기로 하여 1979년부터 14~22세 사이의 젊은 남녀 12,686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패널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NLSY이다.

NLSY의 조사내용은 노동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다양화되었다. 국방부와 Armed Services로부터의 지원으로 군에 입대한 1,280명의 젊은이들을 1979~1984년 기간동안 면접하였다. 그밖에도 많은 기관들의 후원하에 알코올 및 마약 남용실태, 젊은이들의 출산 및 육아 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NLSY79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집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NLSY97로 199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2~16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 및 지역사회 배경 등을 포함하여 교육경험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또한 1986년부터 NLSY 조사대상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Children of the NLSY가 실시되고 있다.

주5) NLSY97은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1980~1984년 사이에 태어난 청소년을 대표하도록 설계되었다.

NLSY 자료는 ‘고용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소’(Office of Employment Research and Program Development)에 보존되어있다. BLS는 NLS의 각 집단의 관리, 설문도구 설계에 대한 정보공유, 자료보급, 사용자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CHRR과 인구조사국(Census Bureau)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NLSY79 및 NLSY79 Children에 대한 자료수집과 집단관리의 계약을 시카고 대학의 NORC와 체결하였다.

한편 다양한 분야의 사회학자들로 구성된 ‘국가종단연구 기술위원회’(NLS Technical Review Committee)가 매년 2회 소집되어 설문설계, 추가설문 주제, 잠재적 연구이용, 방법론, 자료배급, 사용자 서비스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한다.

〈표 IV-1〉 NLS 구성

대상그룹(집단)	연령	표본 크기	시작 년도	최근 조사	조사 횟수	현재 상태
Old Men	45~59세	5,020	1966	1990	13 ^{주6)}	종결
Mature Women	30~44세	5,083	1967	2001	20	계속
Young Men	14~24세	5,225	1966	1981	12	종결
Young Women	14~24세	5,129	1968	2001	21	계속
NLSY79	14~22세	12,686	1979	2000	19	계속
NLSY Children	0~14세	-	1986	2000	8	계속
NLSY Young Adult ^{주7)}	15세 이상	- ^{주8)}	1994	2000	4	계속
NLSY97	12~16세	8,984	1997	2001	4	계속

자료: CHRR(2001), NLSY79 User's Guide p.5의 Table 1.2.1 인용.

NLS의 5개의 조사집단 중 가장 최근에 시작된 NLSY는 첫 조사연도인 1979년 기준 14~22세였던 젊은 남녀들에 대한 대표표본이다. 연간조사를 통하여

주6) 1966~1983년 기간 사이에 12번의 조사 실시, 1990년 조사는 가구원 및 고인의 친척에 대해 이루어졌음.

주7) NLSY79 Young Adult는 초기에는 NLSY79 Children 표본의 일부로서 조사되었으나 1994년부터 15세 이상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조사되었음. 1988년 21세 이상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음.

주8) NLSY79 Children과 NLSY79 Young Adult의 표본크기는 NLSY79 응답자의 가정에 태어난 아동들의 수에 따라 달라짐. 이 아동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표본크기는 생략하였음.

이들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연구자들은 1950년대 말 내지 1960년대 초에 태어난 모든 미국남녀를 대표하는 젊은이들의 일생이 어떻게 겪어 나가는 가를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NLSY의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면 ① 현재의 노동력 상황, ② 노동경험, ③ 고용주와 직업, ④ 고용의 단절성, ⑤ 훈련, ⑥ 현재의 교육상황, ⑦ 군 경험, ⑧ 건강상의 장애, ⑨ 혼인사, ⑩ 임신, ⑪ 소득과 자산, ⑫ 가족구성, ⑬ 거주지의 지리학적 위치 등이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매년 조사되었지만 각 주제에 대한 설문수와 내용은 조사연도마다 다소 다르다.

2) PSID 개요

존슨(Johnson) 대통령 재직시 빈곤에 대한 전쟁의 일환으로 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OEO)는 통계국으로 하여금 이 빈곤에 대한 전쟁이 국민의 경제적 복지수준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를 평가하게 하였다. 소위 ‘Survey of Economic Opportunity’라고 불리는 이 연구는 1966년에 3만 가구를 조사하였으며 이 조사는 1967년에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국민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OEO는 미시간대학 부설 Survey Research Center(SRC)로 하여금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SEO 표본으로부터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약 2,000가구를 추출하여 계속 조사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SRC 소속의 모건(Morgan) 교수는 이 연구가 중산층 및 부유층 까지도 포함하여 전체 미국인들을 대표하는 연구가 되게 하기 위하여 SRC가 가지고 있는 표본조사 틀로부터 새로운 대표표본을 추출하여 기존의 SEO 표본에 추가시켰고 이 연구의 이름이 PSID이다.^{주9)}

PSID만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2가지 특징은 개개인들을 가구라는 틀속에

주9) 패널연구에서는 표본들이 1차년도 뿐만 아니라 해를 거듭하여도 계속 대표성을 갖게 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패널표본이 어느 시점에서든 항상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한 이상적인 조건은 첫째, 1차년도에 임의적으로 추출된 표본가구를 빠짐없이 조사해야하며(100%의 응답률), 둘째, 최초 표본가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매년 조사되어야하며(0%의 이탈률), 셋째, 표본가구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모집단의 변화를 100% 모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에 관련된 예를 들면 출생, 사망 등에 의한 인구의 변화, 결혼, 이혼 등에 의한 가구수의 변화 등이 표본에 의해서도 그대로 포착되도록 표본관리 및 추적원칙을 적절히 설정해야한다. 이를 가장 명확하게 실행한 연구 중의 하나가 PSID이다.

서 오랜 세월 관찰해 왔으며, 가구들을 세대(generation)를 넘어서 까지 추적하였고 종종 한가구로부터 파생된 다수의 세대들을 동시에 면접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가지게 한다.

① 어느 시점에서든 모든 연령층에 대하여 미국의 가구와 개인들을 대표하며, ② 고용, 소득, 인구학적인 정보에 대한 연도별(때로는 월별) 시계열 데이터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며, ③ 각 세대로부터 직접 얻는 성인들에 대한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 유년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년이 된 후에도 획득한 정보, 가구내의 모든 어린이들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세한 정보들을 포함하여 세대간을 걸쳐 광범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④ 건강, 부, 저축, 친족관계 등의 다양한 보충적인 주제들을 포함시켰으며, ⑤ 최근에는 이웃환경, 건강과 사망 등에 대한 특수목적의 연구주제들을 포함시켰으며, ⑥ 연구시작년도인 1968년도부터 중·횡단면적인 데이터를 계속 검토하고 기록해 왔다.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PSID는 인구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경제학자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대표적인 연구주제들은 소득분포의 동태적 변화, 소득이전사업, 저축과 부, 무보수 생산활동, 유년기 및 성년기에서의 빈곤과 사회보장, 친족망, 10대 임신부, 세대간 부의 변화과정 등이다. 이처럼 PSID가 다양한 연구주제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좁은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질문이 아닌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적은 양의 설문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3) PSID 표본

PSID의 최초 표본은 2개의 독립적인 표본들로 구성되어있다. 하나는 군대와 감옥, 정신병원 등을 제외한 생산가능 인구에 대한 횡단면적인 대표표본을 다단계층화추출 방법에 근거하여 추출한 표본이며, 다른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표본이다.^{주10)} 이 횡단면적인 표본은 SRC에 의해 추출되었고 종종 SRC 표본이라 불린다. 이는 등확률표본으로 1968년에는 2,930가구들을 성공적으로 면접하

주10) PSID는 1968년도 최초 표본 구성원의 25세 이하의 자녀 및 양자, 양녀로서 군대, 대학기숙사 등의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표본 구성원으로 분류하였다. 그들은 그 기관을 떠나 자신들의 가정을 구성한 후에는 면접되었다.

었다. 저소득층에 대한 표본은 PSID가 SEO 표본으로부터 추출한 1,872가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종종 SEO 표본이라 불린다. SEO 표본은 표준도시통계지역(standar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 SMSAs)과 남부지역의 비표준도시통계지역(non-SMSAs)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이는 확률 표본이다. SRC와 SEO 모두 1차 년도에 무응답자들이 있었다. SEO 표본의 무응답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SEO 표본을 추출하였던 원래의 센서스 조사에서부터 무응답이 있었다.

둘째, 추출된 센서스 표본 구성원들은 통계당국에 의해 그들의 이름이 SRC에 공개되어도 좋다고 권유받았으나 약 25%의 인원이 서명하기를 거부하였다.

셋째, OEO는 추출된 표본 구성원들 중 일부의 주소를 SRC에 보내지 못했다.

SRC와 SEO 표본 모두 확률 표본이므로 그들의 조합 또한 확률 표본이다. 그러나 그 조합은 등확률 표본이 아니다. 따라서 적어도 기술적인 통계치들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적절한 가중치들을 사용해야한다. 가중치를 사용해야 할 또 하나의 필요성은 1차년도와 그 이후의 조사들에서 무응답률이 다르다는 데에도 있다. 다시 말해 PSID 데이터에 적용되는 가중치들은 1차 년도에 있어서의 상이한 선택확률(unequal selection probabilities)과 매년 달라지는 표본이탈률(differential attrition rates)을 보상하기 위함이다.

2003년도 표본선정을 보면 이전의 조사와 달라진 것은 없고 추가적인 표본선정도 없었다. 2001년 이후 표본들은 주표본집단과 신표본집단(이민자집단)의 두 부분으로 구분되었다.

주 표본집단(Core Sample)은 1968년에 선정된 최초 표본가구와 그들로부터 파생된 가구들이다. 이 집단에서 2001년에 성공적으로 면접조사를 마친 가구는 6,915가구이고, 1999년 또는 2001년에 면접조사에 응하지 않아 재조사(재접촉)를 해야 하는 가구는 340가구였다. 이들 7,255가구는 주 표본집단으로서 2003년 면접조사 대상이 되었다. 면접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 표본집단으로부터 분리된 가구들이 새로운 샘플로 추가되었다. 이렇게 추가된 표본은 792가구로 이들은 ‘조사완료집단’(Spilt-offs)으로 구분되었다. 이 파생집단은 6,915가구 중에서 파생된 가구이다. 한편 또 다른 추가된 표본은 재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가구에서 파생된 33가구들로 이들은 ‘재조사 집단’(Recontacts or Spilt-Recons)으로 구

분되었다.

두 번째 표본집단은 대개 ‘신표본가구(New Sample)’로 불리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민자집단(Immigrant Refresher Sample or Immigrant Sample)’을 말한다. 이 집단은 1968년 후반 이민으로 인해 미국 내 인구구성의 변화가 생기면서 그 당시 이민자들을 1997년과 1999년 조사부터 패널조사에 포함시켰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조사에서는 그들로부터 파생되어 새롭게 생겨난 가구들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이들은 총 491가구로 2003년 조사에서도 면접대상에 포함되었다.

2003년도 응답률을 보면 93.5%로 총 7,870가구에 대한 면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주표본집단은 6,554가구로 이중 Spilt-offs 가구는 561가구였고 83.1%의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주표본집단 중 재접촉으로 분리되었던 가구 중 333가구가 조사에 응하였고 64.6%인 215가구가 면접을 마쳤다. 한편 이민자 표본에서는 459가구(94.3%)가구가 면접조사에 응했고, 36개의 Spilt-offs 가구에서 6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최초의 이민자 표본에서 파생된 새로운 이민자 표본 93가구 중 45가구에서 50.6%의 응답률을 보였다.

최초 PSID 가구들은 1967년도의 미국 가구들을 대표하는 확률표본을 구성한다. 어느 시점에서든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도 이 표본이 대표성을 갖게 하기 위해 PSID는 다음의 표본추적원칙을 세웠다.

기본원칙은 1차년도의 표본가구들에 나타난 18세 이상의 가구(다시 말해 군대, 감옥, 기숙사 등의 가구가 아닌 기관들을 제외한) 구성원들을 PSID ‘표본구성원’들이라 칭하고 이들을 추적 조사한다. 이 최초의 ‘표본구성원’이 이혼을 했을 경우에도 전남편과 아내 모두 ‘표본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며, ‘표본구성원’들로부터 태어난 아이들도 ‘표본구성원’으로 분류된다. 또한 외국으로 이주하여도 ‘표본구성원’으로 남는다. 이들 중 면접대상은 18세 이상으로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이다. 만약 18세 이상의 ‘표본구성원’이 가구에 있지 않고 군대, 감옥, 기숙사 등의 기관에 들어갈 경우는 이 사실을 그들이 떠난 가구에 기록 보존한다. 그 후 기관에서 나와 원래의 가구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가구를 형성할 때에는 다시 면접을 시작한다.

PSID는 표본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은 가구 내에 동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편의상 동거인이라 부름)도 조사한다. 만약 ‘표본구성원’들이 이혼 및 재혼을 통하여 별도의 가구를 형성할 때에는 이들을 추적조사하거나 ‘동거인’들이 ‘표본구성원’들과 분리되어 별도의 가구를 형성하면 더 이상 추적조사하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은 모집단에서의 가구변화과정을 모방하여 표본이 시간을 초월하여 동태적으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최초의 표본가구들로부터 생겨난 아이들이 성장하여 새로운 PSID 가구들을 형성하고 최초의 PSID 가구들이 이혼 및 재혼을 통하여 별도의 PSID 가구들을 만들어냄에 따라 가구수와 개인 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PSID는 매년 면접조사를 통하여 개인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가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가구를 대표하는 성인 1명(주로 남성가구주¹¹⁾)이 응답자가 된다. 때로는 어떠한 이유 없이 남편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내(혹은 동거인, PSID에서는 이를 ‘아내’라고 칭함)가 면접에 응하기도 한다. 이 가구주 혼자서 자신과 아내와 모든 가구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구내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으나 가구주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는 아내들에 대해서도 같은 정도의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4) PSID 조사

PSID 데이터 수집은 미시건에 있는 SRC의 실사 사무국에 의해 수행된다. 여기에는 SRC의 실사감독관 및 SRC 관리자들뿐만 아니라 PSID 참모들도 참여한다. 우선 실사전의 준비물로 설문지, 표지 및 면접원들을 위한 지침서 등이 있으며 이들은 매년 갱신되어진다.

데이터의 수집은 매년 3~9월까지 진행된다면 이는 SRC의 실사 사무국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실사 감독관들 및 면접원들로 구성된 국가실사진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SRC가 이를 조정·감독한다. 대략 115명의 면접원들과 6~12명 정

주11) 결혼으로 성립된 가구의 가구주는 심각한 장애자가 아닌 경우에는 남편으로 정의된다.

도의 실사감독관들이 매년 데이터 수집에 종사한다.

가) 조사방식

조사방식은 계속적으로 변화하였다. 1968~1972년은 직접면접방식을 취했으나, 1973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전화면접을 시행하였다. 1973년 이후에는 전화가 없거나(매년 약 500명) 특별한 이유로 전화면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면접을 수행하였다. 비용을 보다 줄이고 또한 전화로는 장시간 면접이 어려우므로 1973년부터는 면접시간을 줄였다. 직접 면접시에는 약 1시간 걸리던 것이 전화면접 실시이후 평균 20~30분 소요되었다.

〈표 IV-2〉 조사방법의 변화

연도	조사방법
1968~72	면접조사(기장조사)
1973~90	전화조사
1991~93	컴퓨터보조전화조사(CATI ^{주12})로 점차 전환
1994~현재	컴퓨터보조전화조사(CATI)와 컴퓨터보조직접면접조사(CAPI ^{주13})로 조사

2003년도 조사에서는 수기조사에서 컴퓨터보조면접조사(CAI)로 전환되었던 1991년 이래로 조사방법에 있어 가장 큰 변화를 찾을 수 있었다. PSID는 현재도 CAI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방법은 두개의 서로 다른 CAI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이 짜여진 다섯 개의 통합시스템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조사내용은 설문지 형식으로 수집되고 있고, 이렇게 조사된 내용들은 SRC 조사의 새로운 CAI 표준 소프트웨어인 'Blaise'라는 세 개의 시스템에 프로그램되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주거변화와 취업현황은 '경과이력목록(EHC)' 방법을 사용하는 데, 이 방법은 조사자가 응답자의 답변을 EHC 목록에 바로바로 시간을 기록할

주12) CATI: 컴퓨터에 미리 입력된 조사대상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컴퓨터가 임의로 전화를 걸고 전화통화를 통해 들은 응답결과를 면접원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법

주13) CAPI: 조사대상자가 컴퓨터를 이용해 직접 응답하는 방법

수 있고, 조금 더 편리하게 면접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경과이력목록 조사 방법은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조사자와 응답자가 경직되지 않은 분위기에서 면접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기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나) 조사내용

PSID 데이터는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와 개개인에 대한 수년간에 걸친 연구를 통해 방대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게 되어 PSID 내용들을 나열하면 300 페이지가 넘는다. 이 중에는 매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를 PSID의 핵심조사항목들이라고 부른다. 이 핵심조사항목은 소득, 빈곤, 가족구성, 고용, 가사, 주거,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다. 그 밖에 연구과정에서 때때로 추가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를 추가항목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교통이용 상황, 육아, 부(wealth), 보건, 그리고 친구, 친지사이의 시간 및 금전의 이전 등이 있다.

PSID 패널데이터 형성 초기의 조사항목에는 경제적·인구학적 분석에 초점을 두고, 크게 전체와 각 가구구성원의 소득원천과 소득액, 취업상태, 가구구성원 변화, 거주환경 등에 대한 실제적인 세부항목들이 포함되었다.

1985년 초부터는 아내의 출산과 결혼경력도 조사에 포함되었고, 이밖에 식생활 지출, 가사노동 시간, 소비활동, 재산, 연금, 저축에 대해서도 조사하였고 1999년 이래로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비정기적으로 실시된 추가조사항목들을 살펴보면 패널조사 초기에는 표본가구의 주거상태, 주변 환경, 보육, 성취동기, 직업훈련 경력, 그리고 퇴직 후 계획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최근에는 교육, 군대경력, 건강, 친족관계, 그리고 가구의 재산 등이 특별조사항목에 포함되었다.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추가된 조사항목은 국립노화연구원(National Institute on Aging)에서 출자하여 55세 이상의 가구구성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을 실시하였다. 세부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상태, 일상활동 상태, 재가복지(의료관련), 의료관련 지출에 관해 조사하였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PSID 연구는 노인

대해 가구가 노부모의 건강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출과 그들을 위해 가족구성원들이 소비하는 시간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시작했다. 1984년, 1989년, 1994년, 그리고 1999년에 NIA의 승인을 받아 수집된 데이터들을 통해 PSID 패널가구의 재산과 저축에 관한 전망곡선을 산출할 수 있었다.

보육관련 조사는 1997년에 국립아동보건 및 인간발육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가 후원하고 PSID 표본가구의 0~12세 아동 약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항목에는 아동의 가정환경, 가족변천사, 가정과 학교에 대한 아이의 일지, 교육 및 주간보호 환경, 그리고 아이의 인지·감성·육체적인 기능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 IV-3〉 PSID의 핵심조사항목

구분	내용
소득원천 및 소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구성원들의 소득 · 전문업 및 상업 소득 · 임대소득 · 신탁 및 로열티 · 각종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소득 · 직장으로부터의 비금전적 소득 · 친척 및 친지들로부터의 보조금 · 사업소득 또는 농업소득 · 농업 및 조경업 소득 · 주식배당 · 퇴직금 · 이자 · 연금 · 위자료 · 육아지원금 · 그 밖의 소득
빈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빈곤상황
양식과 주거면에서의 공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권 사용실태 · 주거와 관련된 공공지원(공공주거사업대상자인지의 여부, 임대인 경우 공공지원을 받는지의 여부, 난방비의 정부지원)
기타 재정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세 납부 금액 · 자가 및 임대 이외의 거주에 대한 재정지원
가족구성 및 인구학적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행위 및 혼인상태 · 자녀수(총 수 및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자녀수) · 민족, 인종 · 임신 · 양자, 양녀

〈표 IV-3〉 계속

구분	내용
고용에 관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당 근로일수 · 비경제활동일수 · 자신의 병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병구완으로 빠진 일 · 파업한 주의 수 등에 대한 월간 및 연간정보 · 주직장과 부직장에 대한 직종 및 산업 · 공무원 여부 · 임금률 · 주간근무시간 수 · 주직장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 여부 · 자영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여부 · 근로경험: 총경험연수와 현직장에서의 경험연수 · 고용 상황: 면접시의 고용상태 · 구직활동 여부와 방법 · 이전의 고용상황 변화 - 고용주가 변동된 경우 - 고용주는 불변이나 직위가 변동된 경우 - 직종 및 산업의 변동 - 각 고용주하에서 일한 시작과 끝의 보수와 작업량 - 고용주를 바꾼 이유
가사종사 시간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하는 곳의 구조와 규모 · 소유상태(자가, 임대) · 소유의 경우 집의 자산가치 · 남아있는 모기지(mortgage) 액수
지역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동안의 이사(언제와 왜) · 장래 이사계획(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왜) · 주거하는 곳의 주와 카운티 · 가구주가 성장한 곳 · 현재 주거하고 있는 곳 · 가구주가 살아왔던 모든 주들 · 가구주의 전직을 위한 이사 여부
사회·경제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교육과정 · 부모의 교육수준 · 자녀수 · 인종 및 민족 · 아버지의 직업 · 부모의 빈곤상황
보건, 종교, 군복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구성원들의 건강상황 및 장애상태 · 종교 · 군복무 경험
국가단위의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률 ·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 · 노동수요 상황

자료: 신동균, 『미국 패널 데이터의 현황과 시사점』, pp.22~23 재인용.

〈표 IV-4〉 추가된 주제

연도	추가된 주제 내용
1968~72 1977~87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공요금
1969~86	· 통근 수단
1968~72	· 거주 및 이웃 특성, 태도 및 행동양식, 직장외에 스스로 하는 활동, 저축, 가족구성원들의 장애상태, 임신 및 가족계획, 육아, 시간 활용
1972	· 성취, 동기, 인식력(문장력 테스트)
1973~74	· 육아
1975	· 이웃에 대한 만족과 주거문제, 태도, 가구주의 장애상태
1976	· 아내에 대한 면접 - 고용경험 - 임신과 가족계획 - 직업의 특성(요구되는 직업훈련 포함) - 노동력 참가 실태 - 육아 - 태도
1977	· 육아, 가구주의 장애
1978	· 직업훈련, 직업을 갖게 된 방법, 은퇴 계획 및 경험, 가족구성원들의 장애상태
1979	· 직장외에 스스로 하는 활동, 육아, 인플레이션의 영향, 저축, 은퇴계획, 가구주의 장애상태
1980	· 위급할 때 시간적·금전적 도움, 식권·사회보장소득 수혜자격 여부, 인플레이션의 영향, 가구주의 장애상태, 확대가족, 저축
1981~83	· 은퇴계획, 실업기간 및 노동력으로부터의 이탈기간, 연간 입원상황, 가족구성원의 장애 및 병
1984	· 부(여러 자산의 가치), 금전의 소득, 연금계획과 연금 수혜권, 은퇴계획, 유산, 저축, 직업훈련, 실업기간 및 노동력으로부터의 이탈기간, 가구주와 아내의 장애 및 병

<표 IV-4> 계속

연도	추가된 주제 내용
1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내에 대한 면접 - 출산에 대한 회고 - 양자, 양녀에 대한 회고 - 대리부모 역할에 대한 회고 - 결혼내역에 관한 회고 - 전 교육과정에 대한 회고 - 육아 - 가사 - 가족계획 - 가구주, 아내의 장애와 병 - 직업훈련
1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가족구성원들의 건강(일일활동 상황, 연간입원상황, 키와 몸무게, 흡연, 운동)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 가족들간의 연계(부모의 재정상태, 부모의 건강과 시간 및 금전적 지원)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러 가지 자산의 가치), 저축행위(1984~89)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자들의 건강과 의료행위

자료: 신동균, 『미국 패널 데이터의 현황과 시사점』 pp.23~24 재인용.

2003년도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이전 조사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PSID는 표본가구의 결혼과 출산, 가구 구성원들의 가구내 이동상황, 그리고 새로운 표본가구의 구성상황 등 인구학적 변화를 관찰하고 특별조사년도에는 동거인도 조사에 포함되었다. 또한 PSID는 주거상태, 주거비에 대해서도 조사하는데, 2003년도에는 지난 조사 이후의 소재지 변화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집에서의 컴퓨터 이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행되었다.

한편 2001년부터 노동인구의 노동시장 참가와 구체적인 취업현황 등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되었다. 식료품비, 식권 사용 그리고 식품보급 안정도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그리고 PSID의 주요 조사내용인 구성원 개개인과 가구전체의 구체적인 수입과 재산에 대해서 부모의 연금과 퇴직 후 계획을 토대로 상세하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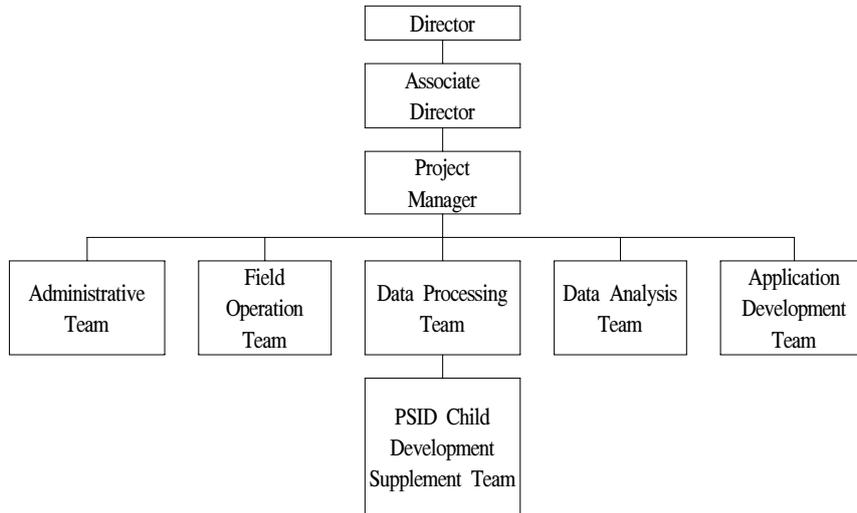
또한 지금까지 노부모의 건강과 만성질환 평가, 건강활동 그리고 전체가구구성원들의 의료비용에 대한 조사가 입원일수와 노부모의 일상생활능력(IADL)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그러나 영양학적 지식에 관한 조사는 2003년에 제외되었다. 2001년부터 조사하였던 자선행사 참가에 대한 조사는 노부모의 자발적인 참여에 관해서도 조사함으로써 그 범위가 좀더 확대되었다. PSID는 지난 2년 동안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참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왔고, 2년 주기의 조사에서 지나쳤던 소득과 노인들을 위한 노력의 총체적인 사항들을 계속 조사했다.

5) PSID 관리체계

가) PSID 조직

PSID는 체계적인 조직 아래에서 운영되며, PSID 운영을 위해 행정팀, 조사현장 운영팀, 자료 처리팀, 자료 분석팀 등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PSID 패널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각 팀들이 활동하고 Project Manager가 이를 총괄한다.

〈표 IV-5〉 PSID 조직도



나) 조사 및 관리

면접원들과 실사감독관이 데이터 수집에 참여한다. 실사감독관들은 면접원들을 선발하여 교육시키고 면접과정을 감독한다. 또한 면접의 질과 완결성, 정확성 등을 검토하면서 면접원과 응답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들을 해결한다. SRC 사무국은 감독관들과 면접원들의 실사 수행에 대한 모의실험을 통하여 실제의 면접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며, 실사상에서 감독관들 및 면접원들로부터 질문에 답하며, 면접자료들의 배포 및 수거를 맡는다. 나아가 매일 감독관들 및 면접원들로부터 접수되는 설문지와 표지들을 기록, 관리하기 위한 표본통제관리 시스템을 유지한다. PSID 참모들은 면접원들의 선발 및 교육을 도와주고, 응답자들의 선정 및 면접에 관한 실사 사무국으로부터의 질문에 답하며, 모의 전화면접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면접원 교육과정을 참관하고 필요시 감독관 및 면접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실사사무국으로부터의 표본통제관리 시스템에 대한 보고를 검토한다.

새로 선발되는 면접원의 수는 매년 다르다. 추가적인 면접원의 고용은 표본가구들이 위치해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사무국은 새로운 면접원들을 선발하고 실사 감독관에 의한 기본면접 교육을 마련해 준다. 기존의 면접원들을 포함하여 모든 면접원들은 실사전에 사무국의 사전회의에 참석한다.

1968년의 PSID 표본은 200개를 상회하는 1차 표본지역(primary sampling area)들에 군집(cluster)되어 있었다. 이는 데이터 수집의 용이함과 이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한 것이었다. 그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PSID ‘표본구성원’들의 이주로 표본은 미국전역 50개주 모두와 여러 외국들도 포함하게 되었다. 연평균 250명의 새로운 가구주들을 면접하였다. 전체 PSID 가구들 중에서 약 92%의 가구들을 전화로 면접하였다. 나머지 8%는 전화가 없거나 청각장애 및 건강상의 이유 혹은 개인적인 사유로 직접 면접을 실시하였다. PSID 초기에는 면접원들을 지리적으로 인접한 응답자들에게 할당하였다. 직접면접은 지금도 이 원칙에 의해 수행된다. 그러나 1985년에 장거리 전화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전화면접원들도 재배치하였다. 미국의 장거리 전화요금 구조로 인하여 이러한 재배치는 주

(state)내에서의 장거리 전화면접에 대한 각 주들 사이의 장거리 전화면접의 비율을 높였으며, 장거리 전화 응답자들은 그 이전의 면접원들로부터 분리시키게 되었다. 하지만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가능한 응답자들에게는 고정적인 면접원들을 접속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했다.

1991~1993년까지 3년간 PSID는 컴퓨터보조면접 방식으로 면접방식을 전환하고 있었다. 첫 단계는 SRC 전화면접진에 의하여 가능한 많은 면접들을 중앙화(centralize)하는 것이었다. 점차 종이와 연필에 의한 면접으로부터 컴퓨터보조 전화면접(CATI)과 컴퓨터보조 직접면접(CAPI)으로 바뀌고 있다.

다) 감독

면접원들이 면접을 완료한 설문지들의 일정부분을 감독관들에 의해 면접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검토된다. 즉, 감독관들은 일부 설문지들을 선택하여 해당 응답자들을 다시 접촉한다. 숙련된 면접원들에 의해 완성된 설문지들의 경우 약 5%정도가 재접촉되며, 새로운 면접원들에 의해 수행된 설문지들의 경우에는 약 10%정도가 재접촉된다. 감독관들은 이 재접촉을 통해 응답자들에게 약 10개의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는 면접이 얼마나 잘 진행되었는지와 면접에 소요된 시간 및 설문지에서 추출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라) 응답률 극대화를 위한 노력

표본의 횡·종단면적 대표성은 패널데이터의 생명과도 같다. 이에 대해 PSID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미국 노동시장의 가장 특징적인 면 가운데 하나는 직장간 지역간 노동의 이동이다. 따라서 최초의 표본가구들을 계속해서 추적조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응답자의 협조를 얻어 내기위해 어떤 종류의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이는가의 문제이다. PSID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행한 노력은 아래와 같다.

- 이사한 표본가구들을 추적하고 응답을 거부하는 가구들을 설득하기위해서

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PSID의 실사기간은 3~9월로 상당히 길어서 최대한의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 각 응답자들에게 \$55을 지급하는데 이는 면접에 응해준 것에 대한 보상과 주소가 변경된 경우 PSID가 제공한 주소변경카드를 반송하는데 드는 경비가 포함된 것이다.
- 매년 분석된 PSID 데이터의 내용들과 이들이 정책토론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요약한 책자를 모든 응답자들에게 우송한다.
- 응답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득하는 내용의 개별편지를 보낸다.
- 모든 면접의 마지막에는 응답자들이 이사할 경우 그들의 새로운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친구나 친지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낸다. 이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참모진들은 면접원들의 추적상의 애로사항이 있을 때 적극 협조한다.
- 전화면접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면접을 실시한다.
- 정기적인 특별 우편접촉(수표, 응답자들의 보고, 다음 면접에 대한 공지사항 등)으로 응답자들이 이사하는 경우 변경된 주소를 빨리 포착 할 수 있게 한다.

나. 영국가구패널조사 The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BHPS)

1) 개요

1991년 9월에 시작한 영국의 가구패널조사(The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BHPS)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추세를 관찰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21세기 영국의 정치, 사회, 경제 구조를 예측함으로써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 조사는 매년 실시되면, 2004년 9월 현재 14차년도 조사(wave 14)가 시작되었다.

BHPS의 주요 목적은 영국의 개인 및 가구 단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경제적 변수 범위와 관련한 원인 및 결과와 변화를 확인하고 유형화하고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BHPS는 Essex 대학에 있는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ISER) 내의 ESRC Research Centre on Micro-social Change와 UK Longitudinal Studies Centre에서 주관한다.주14)주15) ISER는 조사의 기술적 측면 즉, 조사 설계, 질문지 발전, data 유효화 및 가중치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실사는 민간조사기관인 NOP(National Opinion Poll) Market Research Ltd. 가 1991년부터 수행하고 있다.주16) BHPS의 실사는 두 단계로 수행되고 있다. 4월에서 5월까지 1,000명을 표본으로 한 예비조사(pilot survey)가 실시되고, 여기에서 질문 내용들이 검토되었다. 본 조사는 9월에서 12월까지의 4개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응답가구는 £10에 해당하는 선물증서(gift voucher)를 받는다.

BHPS의 주된 활동들은 전체적으로 UK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에 의해 재정 지원을 받으며, 북아일랜드의 조사는 Eurostat에 의해, 11~15세 조사는 The UK Health Education Authority에 의해 지원 받는다.

BHPS에는 소득, 소비, 노동시장활동, 건강, 훈련, 연금, 주거상태 등 경제 활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질문들 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BHPS는 광범위한 사회 과학 분야를 위한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학제 간 연구를 지지하기 위한 연구 자원으로써 설계되었다.

BHPS는 약 5,000가구 내에서 10,000명 이상 면접하여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띤 표본으로 16세 이상 성인 각각에 대해 매년 조사를 실시한다. 1991년 1차년도 조사에 면접을 성공한 가구 수는 5,130 가구로 가구구성원 중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조사 되었다.

주14) 1999년에 만들어진 ULSC(UK Longitudinal Studies Centre)는 1989년 ESRC의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ESRC Research Centre on Micro-Social Change의 연구 자원 요소의 연속선에 있는 것이다.

주15)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ISER) 내에는 ㉠ ESRC Research Centre on Micro-social Change, ㉡ UK Longitudinal Studies Centre, ㉢ European Centre for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ECASS) 등의 Centre들이 있다.

주16) 북아일랜드에서의 현장 조사는 NISRA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2) 표본

BHPS은 5,000 가구 이상에서 전체 대략 10,000 명의 개인을 면접하는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띤 표본으로 16세 이상 성인에 대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도록 설계되어졌다. 그리고 같은 개인들이 원가구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면 다음 년차 조사에서 다시 면접되어지며, 가구에 새로 들어온 모든 성인 또한 면접되어 진다.

BHPS 1차년도 조사의 첫 표본은 우편번호 주소록 파일(Postcode Address File; PAF)로부터 추출한 8,167개로 구성되었다. 면접은 그 주소에서 발견된 모든 개별 가구에게 시도되었다. 응답 가정 안에서 열거된 모든 개인은 종단 표본의 일부가 되었다. 이 모든 표본 숫자가 OSMs(Original Sample Members, 원표본구성원)이다. 연속된 조사의 표본은 1차년도 조사에 면접했던 개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1차년도 면접한 가구에 살았던 사람을 포함한 모든 가구에 있는 성인으로 구성된다.

1차년도와 그 이후 조사에서 표본 적격성은 잉글랜드, 웨일즈, 카렐라니아 운하 남쪽 스코틀랜드 안에 거주하는 것에 따른다. 1차년도 이후 표본에 들어가는 새로운 자격 조건은 ① OSMs(원표본구성원)에서 태어난 아기, ② OSMs(원표본구성원)이 한명 이상의 새로운 사람이 있는 가구로 이동했을 때, ③ 한명 이상의 새로운 사람이 OSMs(원표본구성원)으로 들어 왔을 때 등이다. 즉, 표본은 출생, 혼인, 동거 등으로 인한 새로운 가구원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반대로 사망, 거부, 조사 지역 밖으로의 이사 등으로 인해 줄어들기도 한다.

BHPS은 가구 형성 및 해체를 추적하는 가구 패널조사인데, 그 안의 개인은 표본을 떠나기도 혹은 들어오기도 한다. 조사 시 개인이 면접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은 다음의 3가지 표본 구성원 지위(OSMs, TSMs, PSMs)와 관련이 있다. 첫째, 원표본구성원(OSMs; Original Sample Members)은 1차년도 조사 가구의 모든 구성원을 이르며 더불어 조사 이후에 출생한 그들의 친자를 포함한다. 원표본구성원은 항상 면접 가능한 자격이 있다. 둘째, 일시적 표본구성원(TSMs; Temporary Sample Members)은 연구를 시작한 이후에 원표본구성원(OSMs)과 가구를 형성한 사람을 이른다. 이들은 원표본구성원과 함께 사는 동안만 면접 대

상 자격이 있고, 그들이 떠난다면 면접 대상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셋째, 영구적 표본구성원(PSMs: Permanent Sample Members)으로 일시적 표본구성원이 원표본구성원과 충분히 강하고 지속적인 유대를 갖는다고 간주된다면 PSMs이 될 수 있다.

그리고 BHPS에는 1차년도 조사 이후에 추가로 만들어진 3가지 표본 ① ECHP(유럽공동체가구패널) 하위 표본, ②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확대 표본 그리고 ③ 북아일랜드 확장 표본 등이 있다.

첫째, 7차년도 조사부터 BHPS는 UK의 「ECHP」(유럽공동체가구패널)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ECHP 조사는 EU 안에서 수입, 삶의 조건, 주거, 건강, 노동 등에 대한 비교가능한 미시 수준(개인/가구)의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데, BHPS은 ECHP를 도입하였고, 이에 필요한 몇 가지 질문을 변경 및 첨가하였다.

둘째,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확대 표본이다. 스코틀랜드 확장 표본은 9차년도 조사(1999) 때 ESRC에 의해 재정을 지원 받아 추가되었다. 스코틀랜드 북쪽 지역을 포함하여 1,500 가구로 확대 되었고, 이렇게 확장된 표본에 대해 국가 정체성이나 정부 구조에 대한 태도 등의 새로운 질문들이 추가되었다.

셋째, 북아일랜드 가구 패널조사(NIHPS)로 북아일랜드에 있는 새로운 표본들이 11차년도 조사(2001)부터 첨가되었다. 이 표본 조사를 위해 ESRC와 북아일랜드 정부 부서에서 함께 기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북아일랜드에서의 현장 조사는 NISRA에 의해 수행되었다.

BHPS에서 표본 탈락(attrition)은 각 조사연차 사이에 가구 차원에서 발생하거나 개인 차원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항목 무응답(item nonresponse)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주17)} 이러한 패널 탈락을 최소화하여 지속적으로 표본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17) 각국 가구패널조사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은 다음과 같다.

	미국 PSID	독일 GSOEP	영국 BHPS	대우 KHPS	KLIPS
2차년도	89%(1969)	90%(1985)	88%(1991)	79%(1994)	88%(1999)
3차년도	86%(1970)	86%(1986)	81%(1992)	68%(1995)	81%(2000)
4차년도	83%(1971)	85%(1987)	80%(1993)	62%(1996)	77%(2001)
5차년도	80%(1972)	81%(1988)	77%(1993)	60%(1997)	76%(2002)

- 구성원들이 영국 내 어디로 이사 가든 따라 다닌다.
- 원패널구성원(OSMs)에 의해 형성된 가구의 새로운 구성원을 패널 안에 포함시킨다.
- 효과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 면접자들에게 비디오 시청각 훈련을 실시한다.
- 특별 보고서 및 편지 등을 통하여 패널 구성원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한다.

대부분의 표본 조사에서는 표본의 추출 확률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이한 표본추출확률을 가중치¹⁸⁾를 통해 조정하여야 한다. 표본 조사 자료의 결과가 대표성을 가지려면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패널조사에서는 초기 조사(wave)에서의 표본추출확률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조사(wave)가 진행됨에 따라 표본 탈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중치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BHPS는 영국에 있는 개별가구의 종단조사로 1차년도 조사에서 목표 표본을 5,000가구와 10,000명으로 설정하였다.¹⁹⁾ 패널조사에 포함되기 위한 가구의 초기 선별은 2단계집락확률설계(two-stage clustered probability design)와 계통(체계)표집(systematic sampling)을 사용하였다. 표본 단위(sample unit) 선정을 위한 틀은 Caledonian 운하(즉, 북아일랜드는 제외)의 남쪽 영국에 해당하는 PAF(Postcode Address File, 우편번호주소록)이다. 이는 대규모 정부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틀로 효율과 비용의 균형이 고려되었다.

3) 조사

BHPS 질문지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적합하도록 구성되어있는데 주요주제는 가구동학(動學), 노동시장, 소득과 부의 분배, 주거, 건강, 그리고

주18) 가중치(weight)는 어떤 대상이 속해 있는 집단에서, 다른 대상에 비해 상대적인 중요성을 수치로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자료: 통계청).

주19) 이는 미국 PSID와 독일 GSOEP 에서의 1차년도 조사 표본수를 고려하고, 또한 조사의 성격상 다목적 조사이기 때문에 표본 내에 포함되는 다양한 하위집단의 표본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p.15 인용).

사회경제적 가치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V-6〉 BHPS의 주요주제

구분	내용
가구動學	· 가구구조의 변화: 가구형성과 해체의 원인, 결과 · 가구경제 의사결정 · 가구소비 양식
노동시장	· 직업이동, 노동시장 구조
소득과 부의 분배	· 생활수준의 변화 추이 · 생활주기 효과 · 소득과 가족구성 · 부의 축적과 저축
주거	· 주거비용 · 주거이동의 원인 및 결과
건강	· 건강과 가구경제와의 관계 · 의료서비스의 이용실태와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불평등 정도 · 가구원의 건강상태와 질병의 종류
사회경제적 가치	·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치(행위)와의 관계

BHPS 질문지는 가구용 질문지, 개인용 질문지, 자기기입 질문지, 대리설문서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구용질문지는 가구원 중에서 주거상황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가구원이 응답하며, 개인용 질문지는 만16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이 응답한다. 자기기입 질문지는 면접조사를 마친 모든 가구 구성원이 기입하며, 대리질문지는 선원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있는 가구원이나 고령으로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대신 하여 응답하는 질문지이다. 대리질문지는 응답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는 최소한 4번이상의 접촉시도가 있어야 허용된다.

BHPS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는 서식 질문지(paper and pencil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면접자가 면접타계식 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이때는 면접자 관리 질문지와 짧은 자기완성 질문지 두 가지 양식을 포함하였다. 1994년부터

오디오 테이프를 이용한 자기완성 질문지가 11~15세 아동에게 도입되었다. BHPS는 9차년도 조사 이전에는 서식(PAPI)이었으나, 9차년도 조사에서 컴퓨터 지원 개인면접(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으로 전환하기 시작되었다. 이 시스템에서는 ‘모른다’와 ‘응답 거부’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응답을 해야만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게 되어 있다.

가) 질문항

BHPS 질문지의 질문항은 핵심 요소, 순환 요소, 가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1차년도 조사에서 질문된 많은 질문들은 다음 년차 조사에서 되풀이 되 어지는데 전체 조사에서 반복되는 것을 ‘핵심’(core) 질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조사의 심장부이며, 조사 목적인 순수한 변화를 연구하도록 도와주는 부분이다.

- 주거, 소비, 이웃 특성
- 가구 형성, 가사 노동
- 교육 및 훈련
- 노동 시장 행동, 현재 직업, 일년간의 직업력
- 건강, 활동 제한, 건강 서비스의 이용
- 사회·정치적 가치, 사회 참여 및 네트워크
- 수입: 최근 및 일년 측정치, 비금전적 척도

둘째, 일부 변수는 격년 혹은 순환 주기(2~3년에 한 번)에 따라 조사되는 주제인데 이를 ‘순환rotating’ 질문이라고 한다. 시간에 걸친 큰 변화를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조사할 필요가 없는 주제를 포함하는데, 도덕성 및 종교에 대한 태도, 삶의 만족도, 정부의 역할 및 책임, 환경 등이다.

셋째, 일부 질문군은 패널조사 과정에서 딱 한번 물어보는 ‘비핵심 혹은 가변 구성요소’(non-core or variable components)이다. 통상 한번만 질문되어지는 가령 ‘당신은 언제 학교를 떠났습니까?’ 라든지 ‘당신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와 같은 질문이다.

나) 질문지 패키지^{주20)}

① Cover Sheet

면접자는 cover sheet에 면접대상자에게 통화한 기록 및 횟수, 대상자의 주거 상태 및 유형에 대한 면접자 자신의 관찰 내용, 가구(시설) 특징이나 면접 거부 이유, 전체 및 16세 이상 가구원의 수, 가구 위치도 등 최종가구결과(final household outcome) 등을 기록한다. 그리고 Household Grid를 작성하고, 가구 구성원의 변화 즉, 이사 및 전입 등과 그 이유와 날짜 및 동거 기간, 시설 입소 등 가구 변화를 기록한다.

② 가구 질문지 (Household questionnaire)

가구 질문지(가구 구성표(A household composition form))는 한명 이상 면접을 성공한 모든 가구에서 실시되며, 대부분 가구 성인구성원과 면접자의 첫 번째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가구 질문지의 내용은 주거(accommodation)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는데 주거지 크기, 주거 상태 및 문제, 소유 상태, 보유 및 임대 기간, 주거비용 방법(현금, 모기지), 이전 소유권, 주거 급여(임대 리베이트, 임대 수당) 수혜 여부 등을 포함하며, 텔레비전·비디오 레코더·식기 세척기 등의 가전기기 소유 여부와 자동차 소유 여부 및 주용도 등을 묻는다.

③ 개인 질문지 (Individual questionnaire)

가구의 모든 16세 이상 어른에게 수행되는 개인 질문지는 약 35~45분이 소요된다.^{주21)} 개인 질문지가 포괄하는 내용은^{주22)} 이웃 관계, 개인 신상, 주거 이

주20) 일차년도 질문지 참고

주21) 개인 면접이 끝나면 면접자는 면접시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응답자가 어느 정도 잘 협력하는 지, 이후 추적 조사에 응하려 하는 지, 면접시 장애 요인(시력 및 청력 약화)이 있는지 그리고 면접시 특이점 및 주의점 등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기록한다.

주22) 개인 면접의 결과는 ① 완수 (Full interview), ② 대리 (Proxy), ③ 거부 (Refusal), ④ 부

동, 건강과 보호(caring), 최근 고용과 수입, 지난해 고용 변화, 출산, 혼인 및 관계력 (W2에서만), 고용 지위 변화 (W2에서만), 가치와 의견, 가계 재정과 조직 등이다. 개인용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V-7〉 개인용 설문지의 내용

	영역	내용
핵심	이웃관계와 개인의 인구학적 정보	출생지, 집과 이웃에 대한 주거 만족도, 이사 이유, 인종, 교육 배경과 학력, 최근 교육·훈련, 지지하는 당, 혼인 상태에 있어서 변화
	현재 고용	고용 지위(실업 및 구직, 자영업, 민간 부문·공공 부문 등), 사업 특성/업무, 근무지, 직장 규모, 직장까지 걸리는 시간과 교통수단, 근무 연수, 근무 시간/초과근무시간, 노동조합 소속 여부, 전망과 훈련 및 야망, 퇴직금/연금 체계, 일에 대한 태도, 인센티브, 급여, 공제, 보육 시설, 구직 활동, 경력 기회, 보너스, 급여 관련 활동
	재정	급여, 수당, 연금, 집세, 저축, 이자, 배당금 소득, 연금 계획, 조축 및 투자, 물질적 풍요, 소비자 신뢰, 내적 이전, 외적 이전, 개인 지출, 배우자 역할, 가구 지출, 육아, 청구서, 일상 소비, 자동차 소유 및 사용, 차의 가치, 면접 특성, 기타
	건강과 보살핌	개인 건강 상태, 고용 제약, 의사 방문 빈도, 병원 이용, 건강보험·복지 서비스 이용, 사회복지 서비스, 전문의 진단, 건강 검진, 흡연, 친척이나 가족의 보살핌, 타인 보살핌에 드는 시간, 사적인 건강 보험, 일상생활 활동 가능성
순환	건강과 보살핌	건강 보호를 위한 비용/지불에 대한 태도
	가치와 의견	부의 분배, 사회 정의, 정부의 역할과 책임, 환경, 가구 지출의 관리, 지도자, 종교, 노동 조합, 사회적 계층, 사회적·이해집단 활동에의 참여 여부, 레저 활동, 국가 정체성, 영국 정부의 자치와 지방 권한

재하고 대리 질문도 못함 (Absent, no proxy), © 접촉 실패하고 대리 질문도 못함 (Other non-contact, no proxy), ① 있었으나 면접 불가능하고 대리 질문도 못함 (Present but unable to be interviewed, no proxy) ⑧ 16세 이하 어린이 (Child under 16) ⑨ 기타로 구분된다.

〈표 IV-7〉 계속

	영역	내용
가 변	일생 혼인 지위 변화 (w2)	혼인 횟수, 혼인 날짜, 이혼/ 과부/ 별거 날짜, 혼전 동거
	일생 임신과 입양 경험 (w2) & w8	태생일, 사망일, 입양일
	일생 동거 경력 (w2) & w8	시작과 끝날, 파트너 수
	가치와 의견	자녀에 대한 열망, 중대한 사건, 삶의 질
	일생 고용의 변화 (w3)	직장 첫날과 끝날, 노동 지위, 분야, 직무의 특성
	부와 부채 (w5, w10)	투자와 저축, 채무
	건강과 보살핌	아동 건강, 다른 건강척도 : SF36(w9)
	이웃 특성 (w8)	지역사회와 이웃, 지방 복지서비스의 질
	범죄 (w7, w12)	지역에서의 범법적 활동, 범죄 인지 정도
	컴퓨터와 전산 처리 (w6,7,12)	소유 및 이용
	고용 (w9)	국가최저임금, 노동 억제 요인, 노동 정향
	노화와 은퇴 (w11)	은퇴 결정, 삶의 질, 가족 지지망
	평생 고용지위 변화 (w2)	시작과 끝나는 날짜, 고용 지위
	자녀와 양육 (w12)	학교 선택, 교육적 열망, 양육 스타일

④ 자기완성 질문지 (Self-completion questionnaire)

자기완성 질문지는 개인 질문지에 응답한 모든 반응자를 대상으로 하며 약 5분이 소요된다. 응답하는 동안 타인이 있으면 특별히 영향 받기 쉬운 주관적이거나 태도와 관련된 질문이나 부가적인 비밀보장이 요구되는 민감한 질문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자기완성 질문지는 특히 비밀과 익명성이 보장된다.

핵심 질문으로 스트레스, 걱정, 억압, 역량, 강점, 능력, 행복과 불행 등에 대한 주관적 만족이 포함된다. 그리고 순환 질문에는 태도 측면(가족에 대한, 남

성/여성 역할에 대한, 죽음에 대한, 종교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 삶의 만족도 등이 있다.

⑤ 대리 질문지 (Proxy questionnaire)

대리 질문지는 현장조사 기간 동안 가구 구성원이 부재하거나 혹은 면접을 완수하기에 너무 늑거나 약한 경우 그 사람의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배우자 또는 성인 아동 등 다른 가구 구성원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다.^{주23)} 그리고 『전화 질문지』는 대리 질문지로부터 발전된 것으로 기관에 의해 고용된 경력 면접자가 직접 면접을 시도하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⑥ 아동 질문지 (Youth questionnaire)

아동 질문지는 조사 대상 가구 내에 포함되는 11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에게 그들의 건강, 가족, 희망과 관심 등에 대해 조사하되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 관리체계

Centre는 현장 조사(Field Work)를 수행하도록 의뢰된 『NOP 사회·정치부』(MAI의 일부)와 함께 자료 수집의 모든 측면을 밀접하게 같이 작업하고, 효과적인 데이터 질과 적절한 반응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되고 동의된 일련의 조사 절차를 수행한다.

NOP는 현장 조사, 에디팅, 코딩, data-entry 등과 동시에 모든 조사 도구의 설계에 대해 조언을 한다. 작업 설계, 면접자 지표의 산물과 부가적인 브리핑 내용들의 설계 및 산물 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Centre에 있지만 NOP는 스텝들에게 에디팅과 코딩 결정에 대해 조언해 주어야 한다. Centre는 현장 조사 실무의 특수화, 에디팅과 코딩을 통하여, 질(quality) 통제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주23) 면접자는 다음 년차 조사를 위해서라도 개인이 면접을 거절하거나 접촉이 되지 않은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proxy 면접조차 부적절했거나 불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기록한다.

가) 면접자

1차년도 조사에서, 표본의 250 지역을 담당하기 위해 243명의 면접자가 고용되었다(대체로 1인이 1영역 담당). BHPS에 요구되는 성격 때문에 평균 이상 수준의 경험과 능력의 면접자가 고용되었고, 이들 상당수는 수년간 BHPS 조사에 관여하였다. NOP와 지방 NOP 현장 담당자에 의해 주어진 이사자의 구체적 정보를 통해 표본 영역을 유지하고자 한다. 금년 조사와 후년 조사 사이에 개인을 추적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한다. 면접자는 조사 과정에서 의문이 있을 때 언제든지 지역 지도감독관(area supervisor)에게 연락하여 해결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NOP나 Essex Institute에서 도움을 받는다.

나) 현장 조사 과정

1차년도 조사는 9월 3일에 시작하여 12월 중순에 끝났다(1992년 초에 일부 약간의 추후조사). 표본과 접촉하기 전에, 면접자는 모든 표본 주소로 Centre의 이름으로 「소개 편지」를 발송하는데 이때 조사의 목적을 설명한 간단한 ‘리플릿’을 함께 동봉한다. 면접자는 소개 편지를 발송한 후 일주일 안에 연락을 한다. 모든 참여가구는 나중에 보다 자세한 ‘브로셔’를 받는데 이는 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더불어 조사 참여자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다. 반응자에게 보내어 지는 서류의 복사본은 ESRC 조사 센터에 남겨야 한다.

면접자는 ‘접촉 불가’(non-contact) 처리를 하기 전에 개별 표본 주소에 최소한 6번의 전화를 시도해야 한다. 면접자는 가능하면 더 많이 전화를 하도록 하고, 만약 Centre가 참여를 거부한 가구에 대해 변경하고자 한다면, Centre 이름으로 「특별 변경 편지」를 보낸다.

이후 연속적인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현장 조사 기간은 9월 초에 시작되고 대부분은 12월 초에는 마치는데 이사자 추적, 거부자 변경, 면접자수 부족 등으로 인해 조사 과정이 지체가 되어 다음 해의 첫 3달 동안까지 수행되기도 한다.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자격 있는 응답자들에게 면접자에 의한 접촉이 이루어지기 전에 「advance letter(사전 편지)」^{주24)}가 보내어 졌다.

면접자들은 그들 표본 가구의 모든 자격이 되는 구성원에게 「소개 편지(introductory letter)」를 제공해야 하고 가구에서 요구하기 전에 우편 발송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advance letter」는 16세 이상 조사 대상 자격이 되는 개인에게 조사 전에 보내지는데 이때 선물 증서(gift voucher)가 함께 주어진다(£ 10, 단 아동 면접에서는 £ 5). 또한 여기에 ‘주소 변경 카드(change of address card)’와 ‘팸플릿’을 동봉한다. 이때 편지와 리플릿에는 ‘무료전화 번호’를 기재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거나 응답자가 면접시간을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팸플릿은 주로 조사에 새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조사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면접자들은 advance letter를 보낸 뒤 기억이 생생한 며칠 이내로 전화를 하되, 여러 가지 질문에 대비하여 조사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면접자들은 여분의 선물 증서(gift voucher)를 가지고 있다가 조사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이전 조사 후에 받지 못했다는 사람에게 준다.

조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면접자들은 면접 초반에 그들 지도감독관(supervisor)을 따라 다니며 그들이 하는 면접처럼 완수해야 한다. 지도감독관은 2주간의 현장 과정 모니터를 통해 면접자를 평가한다. 두 가지 방식으로 면접의 질을 통제하는데 면접 전체를 완수한 가구 가운데 약 10%에 우편 연락을 하여 소환하거나 혹은 가구에서 일어난 면접과 수행된 개인 면접을 점검하기 위하여 지도감독관이 전화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Centre는 전화로 질 통제 과정을 보완한다. 이러한 점검은 데이터의 질을 통제할 뿐 아니라, 면접 시간 및 내용,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에 대한 걱정, 기타 전반적인 인상 등 BHPS 면접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알아보는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다) 거부 변경(refusal conversion)

각 조사에서 Centre와 NOP는 거부 또는 다른 형태의 무응답(non-response)으로 인한 탈락(attrition)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거부 변경(conversion) 과정을 수행한다.

주24) advance letter는 lead letter라고도 불리 우며 면접자가 조사 대상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보내는 편지를 말한다.

3차년도 조사에서 새로운 거부자가 나타났을 때,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절차가 시행되어졌다.

- 면접자는 cover sheet 안에 있는 「거부 양식」을 이용하여 거부 특성 및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그리고 각각의 지속적인 변경(conversion) 시도를 이 양식 혹은 연속 sheet에 기록한다.
- 경력 많은 면접자들이 참여 변경(conversion)을 위한 설득을 한다.
- 변경(conversion)이 성공하면 면접자에게 보너스를 준다.
- 일부 상황에서 면접자는 응답자가 변경(conversion)하기 전에 바우처를 발행한다.

면접자들은 응답자의 거부 형태별로 다른 대처 반응을 해야 한다.

- 거부에의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경우(‘귀찮다’, ‘너무 바쁘다’, ‘지루하다’, ‘지난번에 바우처를 받지 못했다’ 등) - 이런 반응자들에게는 <변경 편지>를 보내거나, 면접 완수시 주는 바우처를 다시 한번 발행한다.
- 거부에의 강한 이유가 있으나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경우 (‘아픈 부모님 간호로 바쁘다’, ‘지금 막 퇴원했다’ 등) - 이런 반응자들에게 <변경 편지>를 보내고, Centre에서 가능하면 전화를 건다. 전화번호를 모를 때는 지속적인 협조를 바라는 글을 보낸다.
-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다시는 재방문하지마시오’ 등) - 이번 년도 조사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년도 조사에서 재시도 해볼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Centre에서 한다.

3차년도 조사와 그 이후 조사에서 거부 전환을 위하여 ‘간단한 전화 면접’이 도입되었다. 전화 면접은 다음과 같은 집단에게 실시될 수 있다.

- 한 시간 면접동안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프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 최근 가족을 여의거나 이혼한 등의 개인적 상황이 있는 경우
- 누구를 돌봐야 해서 정말 시간이 없는 바쁜 경우

라) 응답자와의 접촉 유지

가구패널조사에서 응답자와의 접촉을 유지하는 절차는 매년에 걸쳐 계속되는 중요하고 복잡한 일이다. Centre는 매년 조사를 위해 응답자의 주소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야 하며, 최신 정보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응답자와 적어도 2가지 유형의 의사소통이 조사년도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9월 현장조사 전에 정확한 주거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과 응답자들 사이에 조사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다.

면접 이후에 Centre는 「감사 편지 thank-you letter」를 모든 피면접자에게 보내는데 이때 ‘선물 바우처’와 ‘주소변경 카드’(이사할 의도가 있을 때 공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다음 년차 조사 전에, 「주소확인 카드」와 함께 결과물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모든 성인(거부자 제외)에게 보낸다. 면접자는 모든 주소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현장조사 기간에 앞서 점검이 필요한 주소를 확인한다. 반송용 봉투를 동봉한 주소확인 카드를 통해 응답자가 자신의 주소를 확인하고 이사 나간 가구 구성원의 주소를 카드에 기록하여 통지하도록 요청한다. 이는 현장조사 동안 면접자가 해야 하는 추적 업무의 양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각각의 주소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현장조사 전에 센터에서는 cover sheet에 위에 언급된 패널 유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사용하여 표본 구성원의 최신 알려진 주소를 기입한다. 현장 조사 기간동안 응답자가 이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면접자는 다른 응답자, 새로운 세입자, 이웃으로부터 주소와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이 방식으로 주소를 알아 내지 못하면 지방 전화국, 상점, 우체국 등에 자문 요청을 하여 알아내도록 한다.

다. 독일: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GSOEP)

1) 개요

1984년 처음 실시된 GSOEP(Sozio-oekonomische Panel)은 독일의 대표적인 가구패널조사이다. 옛 서독지역에서 먼저 시작된 GSOEP은 같은 개별 가구, 개인, 가족들을 매년 조사하였고, 1990년부터는 옛 동독지역의 가구들을 포함하였고, 1994/95년에는 이민가구 역시 조사대상으로 포함되었다. 2003년에는 12,000가구의 약 24,000명 이상의 개인이 포함되었다.

GSOEP에는 개인과 가구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객관적인 생활조건 및 주관적인 삶의 질, 다양한 생활영역의 변화 등, 이를 기초로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살펴보고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매년 개인 및 가구의 소득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GSOEP 자료는 이를 토대로 개인뿐만 아니라 가구의 생활조건상의 안정성과 변화역시 분석할 수 있다.

GSOEP은 국립 경제연구기관인 DIW(Deutsch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에서 전체를 관할하고, 설문지 작성 및 기타 실무는 민간학술조사 전문기관인 『Infratest』에서 수행하고 있다.^{주25)} 전체 연구 및 조사비용은 독일 국립과학재단인 DFG(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에서 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DIW로부터는 연구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필요연구원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GSOEP의 장점은 데이터 자체가 가지는 패널디자인, 모든 성인가구원을 조사하는 가구의 맥락, 독일 내부 지역간의 비교, 현 독일 내에서 외국인에 대한 가장 규모가 큰 외국인 패널데이터^{주26)}, 이민자에 대한 정보 등 이를 통한 연구의 가능성에 있다. 이를 기초로 GSOEP은 가구 구성, 직업 및 가족 일대기와 같은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하며, 조사 주제별 양식에서는 사회 보장, 교육 및

주25) 독일의 경우 조사 주관기관과 실제 수행기관의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고 조사의 정도(精度)를 높이기 위하여 조사기록파일을 사용한다. 이 파일은 조사 기간 중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나 문제점을 기록한 파일로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토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이며 부수적으로 조사방법을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다.

주26) 현재는 가구주가 터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혹은 구 유고슬라비아출신일 경우에 한해서 조사되고 있음

훈련, 시간 할당, 가족 및 사회 서비스 등의 주제를 포괄한다. 그리고 2000년부터 특히 아동 및 10대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가 17세 가구 구성원을 위한 특별 설문지에 포함되었고, 2003년에는 아동 발달에 관한 질문들이 새로 태어난 아기를 가진 어머니들에 의해 수집되었다.

다음은 GSOEP 조사에서 매년 질문되는 본질적인 영역의 비교적 안정적인 일련의 핵심 질문이다.

- 인구 특성(population and demography)
- 교육, 훈련, 자격증(education, training, and qualification)
- 노동 시장, 직업 변화(labour market and occupational dynamics)
- 수입, 소득, 사회보장(earnings, income and social security)
- 주거(housing)
- 건강(health)
- 가구 생산(household production)
- 기호 및 가치 등의 기본 지향(basic orientation)과 삶의 만족도(satisfaction with life)

이러한 핵심 질문에 덧붙여 GSOEP은 조사 연도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표 IV-8〉 조사 연도별 특별 주제

년 도	Wave	표본의 종류	주 제
1984	A / 1	A B	15세부터 고용 경력
1985	B / 2	A B	혼인 및 가족사
1986	C / 3	A B	사회적 배경, 첫 직업, 이웃 관계
1987	D / 4	A B	사회 보장, 조기 은퇴, 요보호 개인 및 자녀 양육
1988	E / 5	A B	자산
1989	F / 6	A B	상급 교육이나 직업 훈련, 자격증
1990	G / 7	A B C	시간 활용과 기호 기초 질문 (노동 시장 + 주관적 척도)
1991	H / 8	A B C	가족 및 사회적 서비스 가족 및 사회적 서비스(1984년 질문의 주관적·노동시장지수에 대한 반복질문 첨가)
1992	I / 9	A B C	사회보장과 빈곤 (W4(1987)의 부분적 반복) 사회보장과 빈곤 (W4)의 노동시장 척도 및 일대기적 정보의 부분적 반복)
1993	J / 10	A B C	심화 교육이나 훈련 (W6의 짧게 반복) 심화 교육이나 훈련, 노동 시장
1994	K / 11	A B C D1	이웃관계, 가치 및 기대 W11과 같고 더불어 이민 경력과 일대기
1995	L / 12	A B C D1 D2	W1의 부분적 반복 - 시간 활용과 기호, 추가된 임금 질문 W12와 같고 더불어 이민 경력과 일대기
1996	M / 13	A B C D	사회적 연결망 질문의 반복 (W8)
1997	N / 14	A B C D	사회보장과 빈곤 (W9의 반복)
1998	O / 15	A B D C E	생태학과 환경 행동 (간접 조세)
1999	P / 16	A B D C E	이웃 관계, 가치, 기대감
2000	Q / 17	A B D C E F	심화 교육, 훈련, 노동 시장
2001	R / 18	A B D C E F	사회적 연결망, 작업 조건
2002	S / 19	A B D C E F G	자산 (W5 참조), 반복 사회보장 (W14)
2003	T / 20	A B D C E F G	생태학과 환경 행동 (W15)

주: 표본의 종류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설명

자료: Haiken-DeNew and J. R. Frick (Eds.) 2003.

이러한 GSOEP은 세계 최초의 가구패널조사인 미국의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를 모체로 하여 출발하였지만, 설문지 형식이나 조사 기법상 PSID의 문제점을 보완한 데이터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후 유럽 각국에서 실시한 가구패널조사의 모태가 되었다.주27)

2) 표본

가) 표본 및 표집

1984년 초 조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GSOEP 원 표본(original sample)은 1983년 에 구 서독지역에서 선정되었고, 이후 1990년 6월부터 구 동독지역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GSOEP에 의해 대표되는 모집단은 처음에는 서베를린을 포함한 서독지역의 거주 인구로 한정되었다가, 1990년 6월 이후 동베를린을 포함한 동독지역으로 확대됨으로써 독일 전체인구를 모집단으로 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패널데이터 자리잡게 되었다. 서독에서 선택된 외국인 집단들은 연구에서 과잉 표집되었고, 동독 지역 표본 비율이 서독의 표본비율보다 더 높다. 그리고 병원, 요양소, 군대와 같은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1차년도 조사에서 대표적으로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상기 종류의 시설에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초기 가구의 사람들이 추적조사 되어졌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GSOEP은 조사 지역과 모집단을 확장해 나갔는데, 다음과 같은 7개의 하위 표본을 가지며 각각은 다단계 무작위로 표집되었다.

<표 IV-9> GSOEP 하위표본

하위	특 징	시작년도	N (가구)	내 용
A	West-German	1984	4,528	가구주 국적이 서독 혹은 이하 5개국 제외한 외국
B	Foreigners	1984	1,393 (과잉표본)	가구주 국적이 터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C	East-Germans	1990	2,179	가구주가 국적이 동독 (조사 영역 확장)
D	Immigrants	1994/95	522	가구원 중 최소 한 사람이 1984년 이후 독일로 전입 (조사 모집단의 확장)

주27) 강석훈(1997)

〈표 IV-9〉 계속

하위	특징	시작년도	N (가구)	내용
E	Refreshment sample	1998	1,067	모든 현존 하위표본을 커버하는 무작위 표본 (전체 모집단)
F	Innovation sample	2000	6,052	모든 현존 하위표본을 커버하는 무작위 표본 (전체 모집단)
G	High Income sample	2002	1,224	월 순가구수입 7,500 DM 이상

① Sample A “West German Residents” (“German Sample”)

표본 A는 가구주가 독일 국적을 가졌거나 혹은 터키,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스페인 및 이탈리아 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개별 가구에 사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소수 외국인만이 표본 A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GSOEP의 ‘서독표본’이라고도 부른다. 표본 A의 표집은 1982년부터 「ADM (Arbeitsgemeinschaft Deutscher Marktforschungsinstitute^{주28)}」 원관에 기반을 두었고, 표집 설계는 ‘2단계와 1단계 내 2국면(two stages and two phases within the 1st stage)’을 갖는다. 1984년에 약 0.0002 표집확률로 4,528가구가 포함되어졌다.

② Sample B “Foreigners in West Germany”

표본 B는 1984년 옛 서독지역에 사는 터키,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스페인 및 이탈리아 국적의 가구주를 가진 개별 가구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표본 B 모집단은 주(countries) 및 대도시(metropolitan) 지역의 PSUs(primary sampling units, 일차표집단위)로부터 선정되었고, PSUs의 무작위 선정은 각 국적별 독립적으로 추출되었다. 표본 A와 비교하여, 표본 B의 모집단은 과잉표집되었는데, 약 0.0002 표집 확률로 4,528 가구가 포함되어졌다.

주28) Working Group of the German Marketing Research Institutes

③ Sample C “German Residents in the GDR (German Democratic Republic)”

1990년 봄 독일 통일이 기대되어졌고 GSOEP은 그해 6월에 GDR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표본 C는 이전 동독에 있는 개별 가구를 포함한다. 가구주가 GDR 시민인 개별 가구에 사는 사람들을 포함하는데 1990년 6월 GDR에 거주하는 모집단의 약 1.7%를 차지했다(외국인 제외). 「GDR중앙거주자파일(central residents' file of the GDR)」로부터 주소지를 접근하기 때문에 표본 A 및 B와는 다를 뿐 아니라 더 나은 표본 방법이 가능했다.

④ Sample D “Immigrants”

표본 D의 모집단은 표본 A, B, C를 선정한 모집단의 요소가 아니면서 적어도 한 명의 가구원이 1984년 이후 해외에서 독일로 이주한 가구로 정의된다. 표본 D는 1992/1994년에 선정된 D1과 1994/1995에 선정된 D2의 2개의 표본으로 구성되며 이들 각각은 다른 선정틀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표본인 D1은 236 가구를, 두 번째 표본인 D2는 295 가구를 포함하였다.

⑤ Sample E “Refreshment”

1998년에 새로운 표본이 앞서 언급된 하위 모집단의 통합에 의해 주어진 독일에 사는 개별 가구의 모집단으로부터 선정되었다. ‘하위 표본 E’라고도 표시되는 새로운 표본은 진행 중인 패널(A~D)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어졌다. 표본 E에 사용된 선택틀은 하위 표본 A를 선택하는데 사용된 틀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2단계 표본의 선정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주29)}, 하위 표본 A의 2단계 표본 선정할 때 사용한 것과 거의 유사하다.

⑥ Sample F “Innovation”

하위 표본 F는 2000년에 개별 가구 모집단으로부터 모든 다른 하위 표본으

주29) 이는 주로 새로운 조사 도구, 예를 들면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대 PAPI(paper-and-pencil personal interviews)에 의한 것이다.

로부터 독립적으로 선정되었다. 선택들은 한 가지 점만 빼면 본질적으로 하위 표본 A 및 E 선정에 사용된 것과 같다. 모집단을 ‘독일 가구’와 ‘비독일 가구’로 나눈 다음 각 PSU에서, 24 가구가 하위 표본 A 및 E와 같은 틀에 따라 선정되었다. 그리고 표본 E와 마찬가지로 CAPI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하위 표본 A~D와 비교할 때 무응답 단위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가 유용했다.

⑦ Sample G “Oversampling of High Income”

하위 표본 G는 2002년에 개별 가구의 모집단으로부터 모든 다른 하위 표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어 졌다. 선정들은 응답 가구의 매달 월급이 최소 7,500 DM (EURO 3835) 이상인 것을 요구하였다.

나) 표본 크기 확대(development)

GSOEP 조사는 응답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을 들였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안정성을 갖는다. 1984년 「GSOEP West」에 12,290명, 5,921 가구가 참여하였고, 1990년 GDR에서 4,453명 2,179 가구가 조사되었다. 이 표본은 「GSOEP East」 표본을 구성하였다. 최근 2002년 조사에서 「GSOEP West」 표본에는 7,175명 3,889 가구가, 「GSOEP East」 표본에는 3,466명, 1,818 가구가 속하였다. 또한 1994년과 1995년의 522 가구 1,078명의 이민자 표본에서도 유지율은 좋은 편이었다. 1998년 GSOEP은 보충적 표본 E의 1,067 가구, 1923명 표본이 확대되었으며, 2000년에 GSOEP의 대규모 확장이 이루어 졌는데 표본 F는 6,052 가구의 10,890명을 포함하였다(2002년; 4,586 가구의 8,427명). 그리고 GSOEP은 2000년에 새롭게 고소득 가구(표본 G)의 무작위 표본 1,224 가구, 2,671명을 보장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표본이 확장되는 것을 통해 소규모 사회집단 분석의 가능성이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GSOEP 표본 확장의 결정 요인은 (a) 인구학적 요인과 (b) 현장조사 관련 요인이 있다. 첫째, 인구학적 요인에는 개인의 탈퇴(사망, 해외로의 이사 등)와 진입(출생, 독일의 일부 지역 혹은 해외로부터 GSOEP 지역으로 전입, 최

소 응답자 연령인 16세로 성장, 분가한 가구에 새로 들어온 가구 및 개인 등)과 관련된 요인이 있고, 둘째, 현장 조사와 관련된 요인에는 주어진 가구의 성공적인 접촉, 성공적인 면접 수행, 독신 가구나 부모 집을 떠난 젊은이 등 접촉하기 매우 어려운 사회적 집단 등과 관련된 요인이 있다.

3) 조사

가) 조사 원칙

GSOEP 조사의 원칙은 표준화된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직접 면접타계식(face-to-face) 개인 면접을 가구 내 모든 16세 이상 개인에게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대리 면접과 전화 면접은 하지 않으며 조사원에 의한 설문지 작성(paper-and-pencil)을 원칙으로 하며 가구 면접은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다. 종단적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서 매년 가구설문지는 가구주가 가구를 떠나거나 사망하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수행한다.

GSOEP 현장 조사가 가능한 한 구두 면접으로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응답자 스스로 수기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사 방법의 혼합으로 면접자가 있는 상황에서 응답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면접(self-administered interview)을 하거나, 면접자 없이 응답자가 완전히 작성한 다음 면접자가 찾으러 가거나 실조사기관(Infratest)에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응답자의 거부나 부재로 인해 면접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엔 새로운 면접 날짜가 허용되며, 만약 응답자가 원할 경우 면접은 취소가 가능하며 예외적으로는 수기, 편지, 전화를 통해 면접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 미국 등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대리 면접은 GSOEP에서도 예외적인 사례에서는 가능하다. 그리고 1998년의 신 표본 E의 50%를 시작으로 CAPI(컴퓨터 지원 개인 면접)이 GSOEP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면접 방식의 변경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표본 E 면접자의 나머지 50%는 기존 방식인 수기 면접(PAPI)으로 조사되었다. 추후 인터넷을 통한 자기 완성 면접(self-administered interviewing via Internet) 방법

을 도입하고자 2004년 현재 검토 중이다.

이러한 GSOEP 조사 규칙들은 융통성을 가질 수 있지만 응답자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응답자 본인을 통해 수집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규칙이다.

나) 연대기적 질문

GSOEP은 1984년부터 개인 및 직업 일대기, 혼인과 청년 일대기, 노동시장 진입, 개인의 사회적 배경, 이민 정보 등 대표적인 일대기 정보가 수집되었다. 이 자료의 목적은 여성 노동 공급 측정 시의 출산 정보 등과 같은 많은 다양한 분석을 위해 중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과 직업력 또는 세대간 교육정도 등과 같은 독립 분석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GSOEP은 다양한 도구와 설문지를 통해 조사에 참여하는 16세 이상 모든 개인의 일련의 회고적 일대기 자료를 수집하였다. 1984년에는 하위표본 A와 B를 대상으로 달력 양식의 직업력 조사에 초점을 두었고, 1985년에도 하위표본 A와 B를 대상으로 회고적 혼인 및 가족 일대기의 회고적 정보에 초점을 두었다. 1986년 설문지에서 사회적 배경과 직업 시장 진입을 다루는 일대기에 초점을 두었고, 이러한 질문 양식이 유지되었다. 그 후 1990년 처음으로 하위 표본 C(동독인)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였고 1992년 동독인에게 직업, 교육 정도, 일대기 등과 관련된 다른 용어로 부가적 연대기 질문이 주어졌다. 서독인 설문지 버전과 비교하여 약간의 영역 확장이나 변경을 제외하고는 구조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였다. 1994년에 별개의 일대기 설문지인 'Curriculum Vitae'가 4개의 하위표본(A, B, C, D1/D2)를 위해 만들어 졌고, 1996년부터 이것이 완전히 모든 하위 표본(A~D)을 위해 통합되어, 모든 질문이 모든 하위 집단에게 질문되었다. 그리고, 1999년 표본 E를 위한 일대기 설문지가 처음 도입되었다. 2000년에는 16세 혹은 17세 모든 응답자에게 해당하는 일대기 정보 즉, 청소년(youth)에게 특별히 초점 맞추어진 설문지가 도입되었다. 2001년에는 일대기 설문지인 '생활사'(Lebenslauf)부분에서는 보다 심화되고 학교, 아동기 활동과 같은 보다

많은 질문이 포함되었다. 2002년에는 새로운 표본 G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순가
구임금이 7,500 DM(EUR 3,850) 이상인 ‘부유한’ 가구만을 표적으로 했다.

GSOEP의 질문은 시간에 따른 변화와 안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간의 다른
측정(measurements-주어진 시기에서의 정보, 주기별 정보, 월별 정보, 삶의 일대
기적 정보)을 사용하면서 시간의 다른 차원들(dimensions-과거, 현재, 미래)에 초
점을 맞춘다. 조사 내용을 보면,

- 현재 시점에 대한 질문들 (예: 최근 고용 상태, 최근 만족 수준)
- 과거 특정 사건에 대한 단순 회고적 질문들(예: 지난 10년간 얼마나 자주
직장을 바꾸었는가)
- 15세부터 회고적 생활사건 일대기(예: 고용력, 혼인력)
- 수입에 대한 월별 달력과 노동 시장 이슈(예: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고용
상태)
- 일정 기간에 관련된 질문들(예: 작년 면접 이후 혼인, 배우자 사망과 같은
인구학적 변화)
- 미래 측면에 대한 질문들(예: 지금으로부터 향후 5년간 삶의 만족도 혹은
직업 기대도)

다) 조사 도구

GSOEP의 조사도구는 가구에 대한 제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는 Address
Log와 설문지로 구성된다.

면접자가 작성하는 Address Log은 표지(cover sheet)라고도 불리며, 전반적인
가구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즉, 가구크기, 주거지역, 지역 정보와 가구원 개개인
에 대한 성, 나이, 가구주와의 관계 등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전반적 정보, 현장
조사 과정(연락 횟수, 탈락 사유, 면접 방법 등)에 대한 정보, 조사 상태에 따른
다른 버전의 설문지 표시(이전 주소 그대로인 원래 가구는 ‘green’ 대 전출·분
가 등 new 가구는 ‘blue’버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표본 탈락 분석,

표본 가중치, 종단면적 분석에 필수적이다.

GSOEP의 설문지는 경제학적 접근방법과 사회학적 접근방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가구라는 맥락 하에 개인의 경제활동을 파악하며 또한 횡단면적 분석과 종단면적 분석(longitudinal analysis)을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매년 반복되는 주요 질문 주제로는 인구학적 변수, 노동시장과 실업, 소득, 조세, 사회보장, 주거, 건강,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이 있다. GSOEP의 설문지는 가구용 설문지와 개인용 설문지, 비독일인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30)}

〈표 IV-10〉 설문지의 내용

구분	세분	응답자
표준 도구	Address log	면접자 작성
	Household questionnaire	가구주
	Individual questionnaire	16세 이상
특정 집단 대상 부가 도구	life History	18세 이상 첫 응답자
	youth	16~17세 이상 첫 응답자
	mother & child	신생아 어머니
	gap	일시적 탈락자

① 가구 설문지 (Household Questionnaire)

가구 설문지는 가구주(Head of household)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여기서 가구주라 함은 가구의 조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매년 조사 대상이 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거 비용 질문: (공통) 이사 여부 및 이유, 주거지 특성, 소유 여부, 주거 크기, 만족도 등, (임차인만) 정부 주거 급여 수혜 여부, 주거 비용 등, (주택 소유자만) 대출 및 모기지 여부와 금액, 난방 비용, 주택 유지 비용 등,

주30) 면접자는 각 설문지를 완성한 뒤에는 면접 방법(구두, 직접 기록 등)과 면접 시간, 기타 코멘트, 일련 번호, 면접 수행 일자, 면접자 번호를 기록하고 사인을 하는 등 ‘면접자 평가’를 작성한다.

(공통) 저축이나 투자로 인한 수입 여부 및 액수, 유산·선물·복권 등으로 인해 2,500유로 이상의 큰 돈 획득 여부, 아동수당·가구 보조·환자보호 지원·사회부조 등의 급여 수혜 여부 및 금액, 가구원 전체 소득액, 자동차·PC·DVD기·인터넷 접속·핸드폰·팩스기 등의 소유 여부 등

- 기타 질문: 17세 이하 자녀의 성별 및 연령, 현재 자녀가 다니는 학교(기관), 자녀양육 지원자 여부 및 종류(친척, 공공 간호사, 사회복지사, 친구, 이웃 등), 주거지와 주요 시설들(쇼핑센터, 은행, 초등학교 등)과의 거리, 주거 지역의 환경 상태, 주거 지역의 범죄 수준이나 안전도, 외국인 거주 여부, 이웃과의 친밀도 등

② 개인 설문지(Individual Questionnaire)

개인 설문지는 조사대상 가구 내에 있는 16세 이상 개인에게 행해지는 설문지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생활 상황: 건강·직업·가정 임금·개인 임금·주거·여가 시간 등에 대한 만족도, 직업·쇼핑 등 가사 노동·자녀 양육·교육 및 훈련, 취미나 여가 활동 등에 사용하는 일주일간의 시간, 최근 교육 및 훈련 경험, 현재 고용 상태, 급여, 구직 활동 경험 및 이용 기관 등
- 현재 고용: 전직 시기, 이전 직업과 현재 직업 비교, 구직 방법, 직장 규모, 고용 기간, 직위, 주거지와 거리, 근로 시간, 연장 근무 수당 여부, 직종 종류, 급여, 연금·실업 급여·조기은퇴 급여 등 각종 급여 수혜 여부 및 금액 등
- 작년 활동: 지난 해 졸업 여부, 지난 해 취득 자격증 여부, 실업 이유 등
- 작년 수입: 수입원 및 금액, 피고용인 경우 급여 및 보너스 종류 및 금액, 은퇴자인 경우 연금 종류 및 금액 등
- 건강 및 질병: 현재 건강 상태, 스포츠, 체육관 경험, 흡연 여부, 신장 및 체

중, 질병 유무, 의료적 재활 및 직업적 재활 여부, 건강보험 제공주체, 공적 및 사적 건강 보험, 사적 건강보험료 및 보장 범위 등

- 태도 및 의견: 정치 관심도, 지지 정당과 지지도, 사회문제 관심도 등
- 시민권과 국적: 독일 국적 여부, 독일 출생 여부, 시민권 종류, 비독일인 차별 경험 여부, 독일 체류 희망 기간 등
- 부가: 성별, 연령, 혼인 상태, 전년도 조사 이후 가족 상태 변화(혼인, 출산, 이혼) 등

③ 청소년 설문지(Youth Questionnaire)

2000년부터 아동 및 십대와 특별히 관련된 주제가 별도의 도구인 청소년용 설문지를 통해 GSOEP 데이터에 통합되었다. 보충적 청소년 설문지는 가구 내 개인 가운데 17~1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개인용 설문지를 보완하는 성격을 띤다. 이러한 십대에 대한 자료들은 아동기에 대한 회고적 정보가 부모의 인생 역사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다수의 분석을 가능하게 해 준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 세대간 분석 또한 가능해 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거: 부모 집 거주 여부, 독립 주거나 개인 방 소유 여부 등
- 직업과 재정: 직업 유무, 취업 시작 연령 등
- 관계: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선생님, 친구, 또 다른 사람 등이 인생에서의 중요도, 그들과의 논쟁 여부 관계 등
- 스포츠와 여가: 여가 활동 종류 및 빈도, 스포츠 활동 장소 등
- 학교생활: 재학 여부, 최종 학력, 외국 재학 경험, 성적 만족도, 숙제 수행시 부모 도움 여부, 부모와 교사 연락 여부 등
- 직업 계획: 현재 직업 여부, 대학 진학 희망 여부, 경제적 자립 희망 연령, 희망 직업, 직업에서 중요 요소 등

- 장래: 대학 졸업 가능성, 구직 가능성, 실업 가능성, 자영업 가능성, 혼인 가능성, 동거 가능성, 자녀 가능성 등 미래의 직업 및 개인 생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질문 등
- 국적: 독일 출생 여부, 이민 연령, 이주전 거주 지역, 이주전 독일 내 친척 및 친구 존재 여부 등
- 아동기 및 부모 : 성장기를 보낸 지역 유형, 15세 이전 동거 가족원, 부모출생 년도, 부모의 독일 시민권 여부, 부모 직업상 지위 등
- 의견 및 신념 : 배우자 필요 여부, 자녀 필요 여부, 삶과 자신에 대한 가치관 등

④ 보충적 일대기 설문지 (Supplementary Biography Questionnaire)

보충적 일대기 설문지(Lebenslauf)는 18세 이상인 가구 구성원에게 청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개인 설문지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다. 표본 F에 속하는 모든 남성과 모든 다른 하위 집단에 있는 새로운 응답자를 포함한다. 이것은 2001년부터 실시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민권(citizenship)과 국적(origin): 출생 연도, 독일 내 출생지, 국적, 독일 연방공화국으로의 전입 시기, 독일 시민권 소유 여부, 독일에 친지 및 친구 존재 여부 등
- 아동기와 부모 가정: 15세 이전 아동기 성장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 15세까지 함께 산 가족구성원, 부모님의 독일시민권 소유 여부, 15세때 부모 직업 등
- 15세 이후 학교, 직업 훈련, 입대, 취업, 실업 등을 한 연령 등
- 교육: 최종 학력, 출신 학교 유형, 재학 기간, 독일에서 직업 훈련/ 고등교육 수료 여부, 교육 종료 년도 등
- 직업과 경력: 노동 시장 진입 연령, 직위, 고용 형태, 이직 경험, 자녀수, 강

제 질병 혹은 방위 경력 등

⑤ 모자 설문지 Mother and Child Questionnaire

2003년에는 지난해에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한 설문지를 그들 엄마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는 GSOEP 새로운 도구로 인생의 시작 시기에 있는 아동의 발달을 조사하고자 한 것이다. 조사 전년도 혹은 해당 년도에 출생한 아이에 대한 간단한 설문지로 개인적인 경험과 자녀 발달을 다룬다. 그렇기에 임신 상태도 포함하여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다. 중심 주제는 아동 건강, 치료, 아동 발달, 부모 및 아동의 활동, 아버지 및 제3자의 아동 양육 및 지지 여부 등이다.

4) 관리체계

GSOEP의 표본관리체계에서 사망이나 해외 이주로 인해 조사에서 탈락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유이고 분석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응답자의 거부나 가구 탈락(추후조사가 실패한 경우)으로 인한 패널 소실은 문제를 유발하는데 그것이 무작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GSOEP에서 유의미하게 중요한 패널 소실 원인은 첫째, ‘추후 조사 실패’로 가구가 이사한 경우, 분가(split-off)한 경우, 독신 가구 등이고 둘째, ‘응답 거부’는 동 베를린 거주, 가구주의 연령, 여성 가구주, 가구 이사, 분가, 별거 및 이혼, 면접자의 변화, 같은 면접자와의 면접 횟수, 낮은 가구 수입, 수입에 대한 항목 무반응,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이주한 경우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상기 이유로 표본이 소실되는데 안정적인 패널 조사를 위해서 표본 구성원을 추적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가) 추적(tracking)의 개념

전체 가구 구성원을 포함하는 패널 조사가 매년 대상자를 추적하는 기준은

선정된 목표 모집단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패널 조사는 이민을 제외하고 표적 모집단의 자연적인 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년 가구 구성원이 응답자 연령(16세)으로 성장하게 되면 조사의 대상이 된다. 둘째 ‘초기 가구’를 떠나는 개인은 특별한 패턴에 따라 추적되어진다. 이와 같이 종단적 분석 특히 인구학적 사건의 분석을 위해서는 초기 개인 뿐 아니라 GSOEP과 접촉했던 모든 개인들은 보다 잘 추적되어야 한다.

응답자의 이동성과 긴 패널 기간은 전체 표적 모집단에 영향을 주는데, 이보다 응답자의 연속적 조사에의 참여 거부가 표본 감소에 보다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이미 형성된 패널 가구로 전입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처음부터 참여한 개인은 표본 규모(size)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기 보다는 대표성(representativeness)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가중치 절차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GSOEP에서는 가능한 한 오래, 많은 응답자를 표집하기 위하여 표본 탈락에서 ‘최종 탈락’(final drop-outs)과 ‘일시적 탈락’(temporary drop-outs)을 구별한다. 집중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개인이나 가구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추후 조사 참여에의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최종’ 탈락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처음에 ‘일시적’ 탈락으로 평가하고 추후 조사에서 가구에게 연락하고 참여를 설득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한다. 이것이 실패하면 일시적 탈락은 최종 탈락이 된다.

나) 패널 응답자의 동기 유지

응답자가 면접에 대한 동기를 갖는 것은 조사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패널 응답자가 조사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에 알기 쉬운 이름을 붙인다. 모든 표본 응답자들은 GSOEP의 주내용을 ‘독일에서의 삶’(Life in Germany)으로 알고 있다.

둘째, 응답자는 GSOEP 연구의 목적에 대한 삽화가 그려진 「정보 안내서」를

제공 받는다 (표본 B 경우엔 안내서가 응답자 각자의 모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셋째, 응답자는 데이터 비밀 보장에 대한 정보 용지 (information sheet on data privacy)를 제공받는다.

넷째, 각 조사 마다 현장 조사 완수 시에는 「감사 편지(a letter of thanks)」를 보낸다.

다섯째, 각 응답자에게 잘 알려진 TV 「복권(lottery)」 티켓을 제공한다.

여섯째, 1987년부터(4th West-Wave) 모든 패널 가구에게 5~10 DM 상당의 「작은 선물(loyalty bonus)」을 제공한다(이는 서독에서 시간당 임금비율 보다 적어야 한다).

덧붙여, 패널 조사에서는 응답자뿐 아니라 면접자들도 패널을 대표한다. 일부 면접자는 다른 면접자 보다 GSOEP이 요구하는 높은 응답률을 실현하기도 하고, 응답자 거부 가능성이 면접자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였다. GSOEP은 면접자 배치 전략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면접자를 조사 작업에 배치하고 면접자 수와 표본 지점(points) 수를 일치하도록 한다. 즉, 한 명의 면접자에 의해 집락(cluster)이 관리되도록 한다. 그리고 최소한 사례로 면접자가 조사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전략은 1984년 처음부터 사용하였다.

그리고 면접자의 동기 역시 응답자 조사 참여에 중요한 부분이다. 좋은 훈련, 프로젝트에 대해 충분한 정보, 조사 도구의 확실한 구조화,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등은 성공적인 면접의 기초를 제공한다.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자들은 매년 말에 조사 의뢰자인 DIW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고, 면접자들은 요청에 의해서 GSOEP 결과를 기술한 책을 받을 수도 있다.

다) 주소 업데이트

조사 기관인 Infratest에서 만드는 ‘패널 기록철(master file)’은 현장 조사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파일에는 주소, 전화 번호, 면접 방법, 각 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 있다. 조사 기관은 한 해 동안 면접 가구 및 개인의 주소가 변경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조사 기관의 주소 확인 작업은 조사

성공률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며 이때 주소는 우체국이나 지방거주자등록사무실 등을 통해 얻는다.

라) 기타

선물 등으로 응답자의 동기를 유지시키고, 주소를 업데이트 하는 방법 이외에 패널을 보호하기 위해서 GSOEP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 결과가 담긴 소책자를 가구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GSOEP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직접 대면 면접」이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조사를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지므로 시간 경과에 따른 면접자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3. 국제비교 프로젝트

가. PACO 프로젝트

PACO 프로젝트는 Panel과 Comparability의 머리글자를 딴 이름으로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패널 데이터를 국제비교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정의와 포맷 등을 일관되게 재정립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PACO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노동참가, 소득분배, 빈곤, 노인문제 등의 주제를 국제비교학적인 횡단면분석이나 패널분석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PACO는 1992년 미국의 PSID, 독일의 GSOEP 그리고 룩셈부르크의 PSELL을 통합하여 데이터 포맷이나 데이터 정의 등에서 일관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1997년 자료에서 PACO Data Archive에는 유럽과 미국의 PSID 등 총 10개국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다.

PACO 데이터베이스는 원패널 자료를 Compatibility와 Comparability의 관점에서 일관적으로 재정리한 자료이다. 각국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개념이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나, 국제비교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간 상이한 요소가 많다. PACO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차이점을 일관성을 갖는 체계적인 분류 과정을 통해 국가간 상호조화되고 일관성을 갖는 변수와 파일들로 정리하여 얻은

결과이다. 현재 7개국의 데이터가 PACO 데이터베이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모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갖도록 설계되었으며, SPSS 파일로 동일한 변수이름, 값, 데이터구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사용가능한 PACO 데이터베이스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IV-11〉 PACO 데이터베이스 구성내역

국가	년도	표본가구수/표본개인수
프랑스	1985~1990	2,100/7,500
독일	1984~1982	5,900/12,200
헝가리	1992~1994	2,100/5,800
룩셈부르크	1985~1992	2,000/6,000
폴란드	1987~1990	3,700/12,600
미국	1983~1987	6,800/19,400
영국	1991~1993	5,500/13,800

자료: 강석훈, 『유럽의 패널조사 현황과 시사점』 재인용, p.23.

또한 PACO 데이터베이스의 내역으로는 소득변수 66개, 인구학적 변수 16개, 노동력 변수 29개, 인종학적 변수 14개, 주택변수 1개, 시간사용내역 4개, 가중치 4개, 교육 3개 등이다.

일관적이고 세밀한 방법으로 표준화된 PACO 데이터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횡국가간(Cross Country) 패널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매크로 기능을 사용하면 PACO 데이터를 보다 쉽게 인출하거나 결합시킬 수 있다.
- PACO 데이터 구조는 전세계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기본적인 SPSS(매크로)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도 상이한 국가에서의 상이한 기간 간에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 PACO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원자료를 분석하는 것보다 용이하다.

- 연구자가 각국의 개별 패널데이터에 익숙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사용자는 PACO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원자료를 PACO Data Archive에서 이용할 수도 있다.

나. LES(Luxembourg Employment Study) 프로젝트

LES(Luxembourg Employment Study)란 유럽연합의 Human Capital and Mobility Programme과 Nordic Research Council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국제노동연계 프로젝트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선진공업국가에서 특정 분야에서는 노동인력이 부족하면서, 다른 분야에서는 실업이 지속되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LES는 이러한 현상을 국제비교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용이하도록 각국의 노동관련 데이터를 일관성 있는 체계로 재정리하는 프로그램이다. 뿐만 아니라 LES는 다양한 노동관련 국제비교연구를 수행하기위하여 디자인되었는데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을 포괄하고 있다.

- 취업과 실업의 국지적 패턴
- 취업과 실업에서의 변환성: 미국시장과 유럽시장의 비교
- 동부유럽 체제변환국의 노동시장 변화
- 인적자본과 경제적인 성과(economic performance)와의 관계분석
- 사회복지제도의 영향분석: 고용보험제도의 영향분석
- 직업탐색: 비경제활동인구(inactivity)와 실망근로자(discouragement)
- 이민/이주와 관련된 이슈
- 노인들의 노동시장행위: 은퇴결정
- 지역간, 직업간, 교육수준간, 성별, 연령별 실업의 본질 탐구

LES에는 1997년 기준 12개국의 고용관련데이터가 포함되어있으며 향후 6~7개 국가가 더 참여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각국의 데이터들은 1992년 EUROSTAT의 노동력과 관련된 집계변수에 사용된 분류체계와 ILO의

권고안, 그리고 EU의 국가들의 경험을 참조하여 아래의 12개의 주요그룹과 이에 관련된 90개의 변수로 구성되었다.

- 인구학적 변수들: 연령, 성별, 결혼상태, 응답자와의 관계, 국적, 가구원수와 가구내의 아이들의 수 및 취업자의 수
- 노동현황: 설문주간에 근로여부 / 이유
- 주된 직장에서의 특성: 전문적인 지위, 산업, 직업, 근속기간 또는 직장의 안정성, 근로시간
- 부업에 관한 정보: 산업, 취업, 근속기간 또는 직장의 안정성, 근로시간, 규칙성
- 과거의 취업경험: 전문적인 지위, 산업, 직업, 지나온 시간, 최종직장을 그만둔 이유
- 직장탐색: 기간, 주된 방법, 가용성, 등록여부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태
- 교육과 훈련: 최종 학력, 최종학력을 마칠 때의 연령, 교육훈련의 목적
- 조사 1년 전의 상태: 활동 종류, 전문적인 지위, 산업, 직업
- 노동시장에서의 상태: 취업 / 실업 / 비경제활동인구
- 수입과 소득
- 기술적인 항목들: 가구원수, 가중치 등

V. 우리나라의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1. 기본방향

빈곤 및 공공부조 관련 기존의 횡단면 조사자료만으로는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활실태, 복지욕구의 변화양태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빈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그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장기간에 해당하는 개인 및 가구를 관찰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생긴다.

빈곤계층의 규모나 그들의 단면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횡단면 자료만으로는 빈곤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거나 행태분석을 하기는 어렵다. 즉, 유년기의 빈곤이 가구주가 되었을 때 끼치는 영향이나, 빈곤에의 진입과 탈출의 원인, 장기빈곤과 단기빈곤의 차이와 추이 등은 횡단면 자료에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집되는 종단면·횡단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는 패널의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수집되는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자료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의 상황, 개인의 행위(저축 및 근로, 실업 등) 및 그 변화를 추적해 가는 종단면(Longitudinal)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패널자료를 통해 빈곤과 관련한 기술적인 통계현황에 대한 파악은 물론 변수 간 인과관계의 파악을 가능케 함으로써 특정 정책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으며, 정책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방향을 염두에 두고 표본, 설문조사, 관리체계 등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은 전국민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자료를 구축하여야 하며, 빈곤은

다양한 경제적, 인구학적, 사회적 요인들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설문지에 담아서 학제간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료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내용과 형태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세 가지 기본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의 진입과 탈출, 빈곤층의 동태적 추이를 보기 위해서는 표본의 선정이 중요한데, 자활패널이나 노동패널처럼 특정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는 표본이 되어야 한다. 최초조사에서 전국민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하여 패널을 구축한다면 이는 계속적으로 전체 인구에 대한 대표성을 갖게 된다. 최초의 표본선정 이후 계속해서 그 가구를 추적조사하여 한가구의 출생, 이사, 이혼,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한 분가 등 가구구성원의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 이 표본은 모집단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대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적절한 추적원칙과 방법으로 표본들을 관찰하고 표본수가 너무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면 패널자료는 전체 모집단에 대한 변화에 대해 상세하고 연속적인 횡단면 자료의 대표성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빈곤의 동태적 측면을 규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빈곤층의 경제적 행위 및 삶의 질은 경제적 요소, 신체·정신적 건강, 사회적 보호체계 등 다양한 요소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요구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현상을 기록하고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빈곤은 그 과정과 결과가 어느 하나의 학문분야의 분석도구만으로는 접근하기 곤란할 정도의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빈곤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자료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미 선진외국에서는 PACO(Panel Comparability) 프로젝트나 LES(Luxembourg Employment Study) 프로젝트를 통해 패널 데이터를 국제비교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빈곤은 국가간 자본이동의 급속한 자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과 같은 세계화의 영향도 받고 있어, 국내 변수에 의한 영향만을 분석해서는 빈곤문제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빈곤 및 공

공부조 패널 자료를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축한다면 다른 나라의 빈곤관련 정책과 자료를 비교하고 평가하기가 용이할 것이며, 그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의 빈곤문제를 심층적이고 동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패널조사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 빈곤관련조사를 검토하고 국내·외 패널조사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으며, 빈곤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자료의 개괄적인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표본

가. 조사대상자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조사는 우리나라 빈곤층의 동향과 추이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조사표본은 거주지역의 제한을 두지 않고 표집하도록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은 조사대상자를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을 둘 경우 농어촌 지역의 빈곤층이나, 비경제활동 인구는 파악할 수 없어서 표본에서 제외되는 빈곤층이 생겨서 표본의 대표성을 상실할 수 있다.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조사의 조사대상자는 18세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을 ‘표본 구성원’들이라 칭하고 이들을 추적조사 한다. 이 최초의 ‘표본구성원’이 이혼을 했을 경우에도 전남편과 아내 모두 ‘표본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며, ‘표본구성원’들로부터 태어난 아이들도 ‘표본구성원’으로 분류한다. 이들 중 면접대상은 18세 이상이며,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 만약 18세 이상의 ‘표본구성원’이 가구에 있지 않고 군대, 감옥, 기숙사 등의 기관에 들어갈 경우는 이 사실을 그들이 떠난 가구에 기록 보존한다. 그 후 기관에서 나와 원래의 가구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가구를 형성할 때에는 다시 면접을 시작한다.

표본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은 가구 내에 동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편의상 동거인이라 부름)도 조사한다. 만약 ‘표본구성원’들이 이혼 및 재혼을 통하여 별도의 가구를 형성할 때에는 이들을 추적조사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표본이 시간을 초월하여 모집단의 가구의 변화과정을 동태적으로 대표할 수 있게 한다. 최초의 표본가구들로부터 생겨난 아이들이 성장하여 새로운 가구들을 형성하고 최초의 가구들이 이혼 및 재혼을 통하여 별도의 가구들을 만들어 냄에 따라 가구수와 개인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한편 예산 제약 및 국제적 비교가능성 원칙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표본설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PSID는 1968년 시작한 이래 표본의 성장이 계속 되면서 2003년 조사당시 조사완료 표본이 7,870가구였으며, 영국의 BHPS의 1차년도 조사의 표본은 유효표본 7,190가구 중에서 조사완료 표본은 5,130가구였다. 우리나라의 노동패널의 표본도 5,000가구로 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의 규모를 정한다면 5,000가구 이상의 표본은 갖추어야 할 것이다.

〈표 V-1〉 국내외 패널조사 사례의 표본규모

조사명	주사주관	조사대상 연령	표본크기
미국 PSID	미시건 대학	18세 이상	7,870가구 (2003년)
영국 BHPS	Essex 대학	16세 이상	5,130가구
한국 노동패널	한국노동연구원	15세 이상	5,000가구

나. 표본추출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의 모집단은 전국민이다. 따라서 표본추출의 모집단은 인구주택 총 조사의 표본조사구를 활용하는 것이 전국민을 대표할 수 있어서 효과적일 것이다. 인구주택 총조사의 표본조사구를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구(15,300개)를 지역별, 주택특성별로 층화한다. 표본조사구중에서 무작위 추출에 의해 7,000가구를 추출한다.

1차 조사에서 대상표본을 7,000가구로 한 것은 응답기피 등으로 인한 조사실패율이 30%정도는 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BHPS의 경우도 1차 조사에서 조사실패율이 30% 정도였고, 우리나라 노동패널의 1차 실패율도 이 정도 수준이었다. 따라서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의 조사실패율을 30%정도로 예상하고 표본을 7,000가구로 한다면 5,000가구 정도의 목표 표본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3. 조사

가. 조사방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패널조사를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예비조사는 설문지의 구성이 완성되기 전에 설문지 완성도 이외에 다른 문제, 설문지 분량문제의 점검, 설문 응답시간에 대한 점검, 피험자 주관적 응답에 의한 응답 지속여부와 주관적 표본상실률에 대한 점검, 항목별 무응답률에 대한 점검, 횡단적 가중치에 대한 추정과 점검, 변수구성에 의한 표집편포의 점검, 척도구성 방식에 의한 표집편포의 점검 등의 사항들을 검토하여 최종설문지의 완성도 제고를 기하기 위해 실시하여야 한다. 본 조사 1년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사항들을 점검하고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패널조사는 한번 표본을 정하고 1차 조사를 실시하면 이후의 조사에서 수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비조사를 통하여 본 조사 실시의 모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면접타계식(face to face)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먼저, 면접타계식 조사의 경우 설문내용을 컴퓨터 프로그램화하고 조사방문시 조사원이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바로 설문과 답변을 기입하는 방식과 인쇄된 설문지를 휴대하고 기입하는 방식으로서의 운영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휴대용 컴퓨터가 필요하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는 반면,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경우에 비해 시간이 절약되고 바로

통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이나 영국도 처음에는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였으나 점차로 컴퓨터를 활용한 방식을 전환하였다.

한편 비용절감차원에서 2차 조사 시부터는 전화조사도 할 수 있다. 국내·외의 패널조사들도 1차 조사에서는 엄격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3차 조사에서부터는 전화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차 조사 시에 전화조사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조사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계의 살림살이(소득과 소비,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 및 주거 등 가구와 관련된 사항 및 가족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가구원 중 가장 잘 아는 사람(informant)이 응답하도록 한다.

이혼 및 별거, 가구원의 독립 등의 경우 표본구성원들의 주거지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전산망 등을 통해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추적조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사주기는 영국의 BHPS의 경우 1991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고, 독일의 GSOEP의 경우도 1984년 이래 매년 실시하고 있다. 빈곤문제는 사회·경제적 변화 등에 특히 민감하게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실시하여 빈곤층의 동태(dynamics)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조사내용

1) 기본방향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고 설계할 것인가는 패널설계의 핵심중의 하나이다. 설문설계의 원칙을 정리해보면 먼저, 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할 주제와 빈곤문제의 대책, 빈곤 및 공공부조정책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하고 설문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둘째, 국내외 유사자료와 비교 가능하도록 설문을 구성하며 특히 국제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문항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응답자가 충실하고 정직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설문항목과 설문지를 채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한다.

2)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① 설문지는 가구용 설문지와 개인용 설문지로 구분된다.

② 가구용 설문지는 가구원 중 가장 잘 아는 사람(informant)이 응답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구성 및 인구학적 사항(가족구성원, 혼인상태, 자녀 수, 동거가족), 사회·경제적 배경(총 교육과정, 부모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 부모의 빈곤상황 등), 고용에 관한 사항(주당 근로일수, 실업기간, 휴가, 자신의 병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병구완으로 빠진 일, 주직장과 부직장에 대한 직종 및 산업, 임금률, 근로경험, 고용 상황, 구직활동 여부와 방법, 직종 및 산업의 변동 등), 소득(가족구성원들의 소득, 소득원천, 연금, 각종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소득, 각종 보조금 등), 빈곤, 주거(거주자의 구조와 규모, 소유상태, 집의 자산가치, 융자금 등), 양식, 주거면의 공공부조지원(공공부조 제공실태, 주거와 관련된 공공지원 등), 재정문제(저축, 부채, 세금납부액 등) 이사(지난해의 이사, 가구주가 살아왔던 지역, 이사계획과 이유 등), 건강 및 장애상황에 대한 것이다.

③ 개인용 설문지

가구의 모든 18세 이상 어른에게 수행되는 개인 질문지로, 개인 질문지가 포괄하는 내용은 이웃 관계, 개인 신상, 주거 이동, 건강과 보호(caring), 최근 고용과 수입, 지난해 고용 변화, 출산, 혼인, 고용지위 변화, 가치와 의견, 가계 재정 등이다.

개인용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의 인구학적 정보(출생지, 주거지, 이사, 학력, 최근 교육관 훈련, 혼인 상태 등), 고용(고용 지위, 업무 특성, 근무지, 직장 규모, 직장까지 걸리는 시간과 교통수단, 근속 연수, 근무 시간 및 초과근무시간, 전망과 훈련 및 야망, 퇴직금 및 연금 체계, 일에 대한 태도, 급여, 보육 시설, 구직 활동, 경력 등), 재정(급여, 수당, 집세, 이자, 연금, 채무, 이전 소득, 저축, 개인 지출, 가구 지출, 육아, 일상 소비, 자동차 소유 및 사용 등),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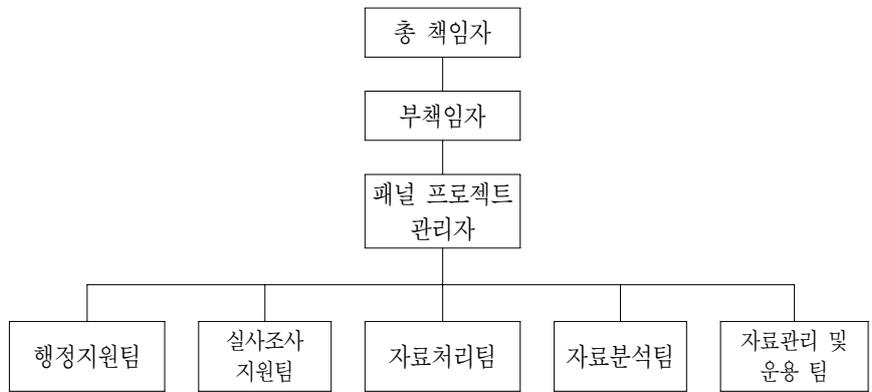
강관련(건강 상태, 병원 이용, 건강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건강 검진, 흡연, 친척이나 가족의 간병여부, 사적 건강 보험, 일상생활 활동정도 등) 등이다.

4. 관리체계

가. 관리조직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패널자료수집과 분석·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조직이 필요하다. 행정적 지원과,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자료수집, 수집된 자료의 처리, 자료 분석, 지속적인 자료의 관리를 맡는 전문적인 팀에 의한 운영이 필요하다.

〈표 V-2〉 우리나라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조사 운영조직표(안)



나. 추적조사

패널조사가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대표성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대상 표본의 탈락을

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회수가 늘어날수록 표본탈락률이 증가하면 조사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분석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패널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우패널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패널의 탈락에 의하여 표본이 점점 대표성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조사에서는 철저한 표본관리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먼저 추적조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다.

- 조사대상자가 이사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지역을 이동할 경우에는 추적조사 한다.
- 한번 표본으로 설정된 조사대상가구는 이혼, 별거, 가구원의 독립 등의 변화가 있어도 계속적으로 가구원들을 추적조사 한다. 다만 이혼 또는 별거 후 재혼하거나 타인과의 동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추적조사 하지 않는다.
- 가구의 이사가 빈번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친지, 이웃 등 가장 가까운 가구나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두어 응답자 관리의 부차적인 접촉방법으로 강구한다. 패널 응답가구와 적어도 1년에 1번 이상은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이사계획이나 이사 예정시기, 취업 후 이동한 지역 등을 철저하게 파악한다. 행정 전산망, 사회보장관련기관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가구의 주거지를 체크한다. 패널대상이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주거지 정보를 조사주관기관에 제공할 때는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추적조사 대상은 이전 조사에 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응답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조사에서의 응답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외국(미국, 영국, 독일 등)의 경우 대개 후자의 경우를 택하고 있고, 패널의 대표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후자의 추적원칙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적원칙을 정립하고 실행하면, 추적조사에 따르는 비용은 증가하

지만, 최초조사에서 설정한 표본의 대표성은 유지될 수 있으며, 웨이브(wave)가 진행됨에 따라 표본탈락의 효과도 일정부분 상쇄시킬 수 있게 된다.

다. 응답자 및 표본관리

패널조사는 표본탈락률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표본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국내외의 패널조사의 응답자 및 표본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표본관리방안을 세울 수 있다.

-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사의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조사에 대한 사전예고 우편물을 발송한다.
- 조사를 약속한 응답자가 약속을 어길 경우 ‘또 찾아 뵙겠습니다’ 카드를 남겨 후속 약속을 잡도록 한다.
- 응답거절자에 대하여 설득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발송하여 응답률을 높인다.
- 조사 직후 조사대가 및 감사의 현물 또는 선물을 제공한다.
- 설문에 응해준 것에 대한 감사편지를 발송하여 지속적인 패널조사대상자로서의 동기부여를 한다.
- 정기적인 뉴스레터(on-line 또는 off-line) 및 조사결과로 나온 간행물을 발송하여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생일카드 등 조사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 현장실사를 담당하는 조사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철저한 감독과 사후관리를 진행하여 정확한 패널조사를 유지하도록 한다.
- 면접원관리와 배치를 효과적으로 하여 조사대상자간의 유대관계를 확보하고 유지한다.

이 중 마지막 두 가지는 조사의 장기지속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설문조사 문화상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전문기관과 주관기관, 이들 기관과 조사원간의 장기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대책은 필요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조사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며, 조사에 대한 조사원과 조사대상자가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조사의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조사원은 물론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도 조사성공률을 제고하고 조사질문에 성실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금전적(현금, 선물 및 상품권) 보상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외 패널조사의 경우 대부분 금전적 보상을 표본응답자 관리의 핵심적인 유인장치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 V-3〉 국내외 패널조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보상방법

조사명	조사국	보상방법
PSID	미국	현금지급
NLSY	미국	현금지급
BHPS	영국	상품권 형태의 선물지급
GSOEP	독일	TV 복권(lottery)티켓, 작은 선물(loyalty bonus) 제공
KLIPS(노동패널)	한국	선물지급

조사대상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응답자 관리방안은 예비조사 시 최종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응답자의 욕구(보상수준 및 방법)를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최적의 조사 유인 방안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5. 자료의 관리 및 활용

가. 자료의 관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자료의 구축은 다양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먼저 빈곤의 동태와 추이를 보여주는 정확한 자료를 통해 올바른 빈곤 및 공공부조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고, 시행되는 관련 정책들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패널자료 구축을 통해 다양한 빈곤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 우리나라 빈곤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차이, 빈곤에의 진입과 탈피, 그리고 그 인과관계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빈곤 및 공공부조정책의 관련 국가간 비교연구 및 빈곤 정책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가능케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학교나 연구기관에 자료를 보급함으로써 다양한 연구 산출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만들고 그 관리도 적절하게 해야 한다. 먼저, 조사자료는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자료가 정리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처리 및 통계소프트웨어 활용능력이 약한 사람들도 보다 쉽게 자료접근이 가능하도록 Data set을 편리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사용자 매뉴얼과 테크니컬 보고서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한다. PSID나 노동패널의 경우 매년조사가 진행되고 나면 User Guide를 배포하여 패널조사자료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패널조사 구축 이후 응답자의 지속적인 관리나 질 높은 자료의 생성과 함께 조사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은 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정책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외국의 경우 조사년도마다 패널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기초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원자료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우패널이나 노동패널의 경우 학교나 연구소 등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일부 전문가들만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공자들

의 활용은 아직은 미흡한 편이다.

나. 자료의 활용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자료 구축으로 각종 빈곤관련정책 및 이슈연구와 활용뿐만 아니라 타 국책·민간연구원 및 정책결정기관의 연구 및 정책결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더욱이 학교 및 석·박사 학위과정의 학생들의 논문 등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기초자료로도 제공하여 활용이 극대화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패널처럼 조사자료가 발표될 때마다 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전공과 관계없이 많은 수요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자료를 통계적 분석방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사례집을 개발하여 연구자 및 학생들이 실증적 분석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실증분석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통계 프로그램 사용사례집(예: SAS, SPSS)을 발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PSID의 경우 SAS를 이용한 통계분석기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끝으로 자료의 축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본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보고서로 쌓인 경우 이들의 목록을 모은 서지(Bibliograph)를 발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I. 결 론

우리사회의 빈곤문제는 경제위기 이후 질적·양적으로 변화했고, 세계화, 노동 시장 유연화, 국내자본의 해외이탈 등 다양한 요인들이 빈곤문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빈곤문제의 변화를 추적·조사하여 관련정책의 개발과 평가에 활용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패널자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양한 패널자료구축에 착수하였으며, 현재는 축적된 자료를 활발하게 활용하여 빈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의 개발과 이를 위한 기초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양적·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빈곤문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경제위기 이후 시행된 현행 공공부조 관련 정책의 평가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빈곤정책의 수립을 위한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자료의 구축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빈곤문제의 양상변화를 배경으로 진행된 본 연구에서는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조사의 필요성을 밝히고, 그 기대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 빈곤 및 공공부조 관련 횡단면 자료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국내·외의 패널자료들의 조사목적, 조사방법, 설문구성, 자료 및 표본 관리 등을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자료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자료가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우리나라 빈곤의 다양한 측면의 실태와 변화추이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수가 빈곤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행태모형의 분석을 통하여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서론의 기대효과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빈곤 및 공공부조 관련 정책의 도입 전후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결과와 빈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기초 연구를 통해 관련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빈곤에 대한 패널자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횡단면 자료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분석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패널자료는 패널이탈에 따른 편의(attrition bias), 자료처리방법의 미발달, 높은 조사비용, 횡단면 수준의 자료보다 더 많은 오차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에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없는 자료가 보다 효과적인 분석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패널자료만이 질적 수준(quality level)이 충분히 갖추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패널자료의 질(quality)은 초기표본의 성격, 패널조사기간 동안 가구추적의 성공여부, 설문서 설계, 그리고 자료처리와 같은 다양한 차원을 포괄한다. 매우 높은 질적 표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패널자료는 분석적인 이점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새로운 표본에서 얻은 횡단면자료보다 못하다. 그러므로 높은 질적 수준의 패널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다음과 같은 점들을 기술하면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질적 수준이 높은 초기 표본이 필요하다. 패널조사의 이탈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최상의 보험은 관심이 있는 모집단으로부터 질적 수준이 높은 초기 확률표본을 확보하는 것이다. 작위적(nonrandom) 무응답 또는 확률표집방법으로부터 이탈된 초기웨이브의 문제들은 종종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수정하기가 불가능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초기웨이브 이후의 웨이브들의 무응답은 처리하기가 어느 정도는 손쉽다. 즉, 무응답가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초기 웨이브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무응답의 차이에 대한 가중치 작업을 통해서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하다.

둘째, 적합한 패널 추적원칙이 있어야 한다. 적절하게 설계된 가구패널조사는 패널이 추출된 모집단을 지속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모집단에 개인 또는 가구를 추가시키는 출생, 이혼, 자녀의 분가와 같은 변화가 모집단에서와 동일한 비율로 확률표본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 추적원칙을 간략하게 말하면 원래의 표본가구의 모든 구성원, 즉, 원래의 패널구성원에게서 태어난 모든 개인들을 추적해야 한다.

셋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본구성원을 성공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가구패널조사의 질에 있어 중요한 점은 초기표본가구원들에 대한 상당한 비율의 시계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상당한 비율’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패

널이탈로 발생하는 분석 상 문제들은 이탈의 양보다는 그 성질에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좀 애매할 수 있다. 그러나 패널조사연구는 패널이탈이 치명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 부담이 있다.

넷째, 패널조사는 광범위한 웨이브 간 일치성을 점검해야 한다. ‘시계를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지만, 시계를 두개 갖고 있는 사람은 정확한 시간을 절대 알 수 없다.’ 라는 속담이 있다. 즉, 패널자료는 동일한 개체에 대해 중복적인 관측을 제공함으로써 각 웨이브 간 일관성이 없는 응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비일관성은 다음과 같은 여러 원인들에서 발생하게 된다. 즉, 응답자의 응답의 비일관성, 면접자의 기록오류, 코딩오류, 자료기록을 시간별로 연계시키는데 사용한 정보의 오류 등을 비일관성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여러 웨이브들의 정보를 연계시킬 때, 측정오차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자료세탁(data-cleaning)에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한다. 일관성 점검은 점검자가 원래의 면접계획안에 접근할 수 있을 때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섯째, 패널조사는 조사기간 동안 연속적인 계측이 되어야 한다. 패널조사 면접은 종종 일년 동안 항상 단속적(discrete)으로 수행된다. 패널조사에서 수집된 많은 정보, 예를 들면 가구원의 고용과 결혼 상태, 주거상태 등은 면접시점의 조건을 참조한다. 또한 패널조사는 많은 양의 경제적, 인구학적 정보와 같은 연속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즉, 출산, 결혼 또는 가구구성의 변화와 같은 인구학적 사건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날짜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노동시장사건의 경우는, 즉, 직업전환의 시점과 실업기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만일 사람의 기억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다면, 이런 연속적인 정보들은 단 한번의 회고적 면접(retrospective interview)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일시적 회상정보는, 특히 면접시점으로부터 일년 이상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매우 부정확하다. 질적 수준이 높은 연속정보는 각 패널 웨이브에 포함된 단기회상정보를 수집한 패널조사들을 사용해서 얻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석훈, 『패널조사 설계시의 이슈들』, 2002.
- 강석훈, 『유럽의 패널조사 현황과 시사점-가구패널조사와 국제비교학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1997. 6.
- 금재호, 『고용관련 패널조사의 의의와 필요성』, 한국노동연구원, 1998.
- 금재호, 『캐나다 고용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 1998.
- 금재호, 『패널예비조사의 목적과 내용』, 한국노동연구원, 1998.
- 금재호, 『패널조사의 응답자 관리』, 한국노동연구원, 1997.
- 박병현, 『빈곤의 지속기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997.
- 박천수의, 『고용구조 및 청년패널의 조사설계』, 노동부 Website.
- 신동균, 『미국 패널데이터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1998. 4.
- 이용하, 『국민연금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2003.
- 채서일,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학현사, 1997.
- 채창균 외, 『한국교육고용 패널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연구』 1~4, 1997.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2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2002.
- Greg J. Duncan, "Panel Studies of Poverty: prospects and Problems", Survey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Michigan, 1989.
- Institute for Social & Economic Research, *BHPS User Documentation, Volume A - User Guide*, University of Essex.

Institute for Social & Economic Research, *BHPS User Documentation, Volume B - Codebook*, University of Essex

Institute for Social & Economic Research, *BHPS questionnaires and Showcards*

John P. Haisken-DeNew and Joachim R. Frick (Eds.), *Desktop Companion to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SOEP)*, DIW Berlin, 2003.

Joachim R. Frick, *Introduction to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SOEP)*, Jürgen Schupp, *20 Years of Household Panel Data for Germany: The SOEP survey and organization between continuity and innovation*, DIW-Berlin, 2004.

Martin Spieß. and Martin Kroh, *DIW Materialien Research Notes: Documentation of Sample Sizes and Panel Attrition in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GSOEP) (1984 until 2003)*, 2004. 7.

NOP, *Living in britain, Living in scotland, Living in wales wave 13 mainstage booking in, editing & coding instructions*, 2003. 9.

Peter Gottschalk, Patricia Ruggles *Using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to Study Poverty and Welfare Dynamics*, Paper Commissioned by the PSID, 1994.

DIW-Berlin, 2004. 6 (<http://www.diw.de/gsoep>)

PSID Website, <http://psidonline.isr.umich.edu>

【부록】 외국의 패널조사 현황 (자료: PSID 웹 사이트)

오스트레일리아

- ① 제목: Household Income and Labor Dynamics in Australia(HILDA)
- ② 주관기관: University of Melbourne,
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 ③ 조사년도: 2001
- ④ 표본: 7,682가구의 구성원들에게 인터뷰 실시.
- ⑤ 내용: 소득사항, 노동시장 관련사항, 가족사항
- ⑥ Site 주소: <http://www.melbourneinstitute.com/hilda>

벨기에

- ① 제목: Belgian Socio-economic Panel(SEP)
- ② 주관기관: Centre for Social Policy, University of Antwerp
- ③ 조사년도: 1985, 1988, 1992, 1997
- ④ 표본: 표본은 벨기에 가구와 개인을 대표함. 1985년 6,471, 1997년 4,632(신규 표본 2,375가구 포함)
- ⑤ 내용: 인구사회학적 특성, 고용상황, 가구소득, 자산, 주거상황, 주관적 소득 평가
- ⑥ Site 주소: http://www.ufsia.ac.be/CSB/sep_nl.htm

캐나다

- ① 제목: Survey of Labor Income Dynamics(SLID)
- ② 주관기관: Statistics Canada
- ③ 조사년도: 1993~2000
- ④ 표본: 10개주(province)의 약 35,000가구
- ⑤ 내용: 경제복지상황, 복지의 영향과 변화, 교육, 장애
- ⑥ Site 주소: <http://www.statcan.ca/english/survey/household/dynamic/income.htm>

네덜란드

- ① 제목: Dutch Socio-Economic Panel(ISEP)
- ② 주관기관: Statistics Nrtherlands
- ③ 조사년도: 1984 ~ 1997
- ④ 표본: 5,000가구의 16세 이상의 가구구성원
- ⑤ 내용: 교육, 소득, 자산, 적응, 복지에 대한 평가 등
- ⑥ Site 주소: <http://center.uvt.nl/research/facilities/sep.htm>

프랑스

- ① 제목: French Household Panel
- ② 주관기관: ADEPS, Equipe de recherche en Analyse Dynamique des Effets dea Politiques Sociales and Direction Regionale en Lorraine de l'Institut National de

la Syatistique et des Etudes Economiques(INSEE)

- ③ 조사년도: 1985~1990
- ④ 표본: 최초 표본은 Lorraine 지방에 사는 715가구였으며, 두 번째 웨이브에서 2,092가구로 증가
- ⑤ 내용: 가구구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거, 소득, 교육, 고용, 주거배경, 주관적 빈곤지수, 고용창출 활동, 가구자산, 부채 등
- ⑥ Site 주소: <http://www.ceps.lu/paco/pacofrpa.htm>

룩셈부르크

- ① 제목: Panel Socio-Economique "LiewenZu Letzëbuerg"(PSELL)
- ② 주관기관: A Centre for Socio-Economic Research
- ③ 조사년도: 1985-
- ④ 표본: 1985~94/ 2,012가구와 6,110명의 개인, 1994~/ 2,978가구와 8,232명의 개인
- ⑤ 내용: 주거, 가족구성, 소비수준, 부채관리, 빈곤측정 등
- ⑥ Site 주소: <http://www.ceps.lu/psell/pselpres.htm>

러시아

- ① 제목: Russia Longitudinal Monitoring Survey(RLMS)
- ② 주관기관: Carolina Population Center at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③ 조사년도: 1992-

- ④ 표본: 7,200가구
- ⑤ 내용: 건강, 식품섭취, 지출의 측정, 서비스 이용, 지역사회 수준 등
- ⑥ Site 주소: <http://www.cpc.unc.edu/projects/rfms/home.html>

스웨덴

- ① 제목: The Swedish Panel Study Market and Nonmarket Activities(HUS)
- ② 주관기관: Department of Economics, Gothenburg University
- ③ 조사년도: 1984
- ④ 표본: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18~74세의 2,000명
- ⑤ 내용: 가족형태, 아동보호, 주거, 고용, 소득, 재산, 세금, 서비스 이용 등
- ⑥ Site 주소: <http://www.nek.uu.se/faculty/klevmark/hus.htm>

스위스

- ① 제목: Swiss Household Panel(SHP)
- ② 주관기관: SHP-Team at the University of Neuchâtel
- ③ 조사년도: 1999-
- ④ 표본: 5,074가구의 7,79명의 개인
- ⑤ 내용: 가구구성, 주거, 소득, 가족생활, 주요사건, 가족 이슈, 건강, 교육, 고용, 종교, 네트워크, 레저, 미디어, 정치적 가치, 만족도
- ⑥ Site 주소: <http://www.swisspanel.ch/>

영국-ECHP

- ① 제목: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Study(ECHP)
- ② 주관기관: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LSE)
- ③ 조사년도: 1994~1996
- ④ 표본: European Union Member States에서 가구패널 표본구성
- ⑤ 내용: 이민, 주거, 소득, 경제활동, 소비, 사회적 관계, 교육, 건강 등
- ⑥ Site 주소: <http://www.iser.essex.sc.uk/bhps/index.php>

미국-HRS

- ① 제목: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 ② 주관기관: The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 ③ 조사년도: 1992~
- ④ 표본: 원표본은 1931~41년에 태어난 대상, 이후 1923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 1998년 웨이브에서 1924~30년, 1942~47년에 태어난 사람 더해짐. 2004년에 1948~53년에 태어난 사람이 더해짐.
- ⑤ 내용: 소득과 고용, 소득과 부, 건강상태, 건강보험의 커버정도, 세대간 이전, 가족구성 등
- ⑥ Site 주소: <http://www.umich.edu/~hrswww/>

연구보고서 2004-18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 데이터 구축방안
A Preliminary Study to Build Up Korean Poverty Panel Survey

발행일	2004년 12월 일	값 5,000원
저 자	백 화 종 · 김 안 나	
발행인	박 순 일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대명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ISBN 89-8187-332-1 93330